

지구는 계속 지켜져야 하니까-  
Eco를 포기할 수 없었다

자동차는 계속 달려야 하니까-  
Performance를 포기할 수 없었다

친환경을 넘어  
에코 퍼포먼스로 완성된다



환경을 지키면서 드라이빙 능력까지 좋게 할 순 없을까?

이 모순된 질문에서 시작된 연구와 노력이

N'blue Eco의 Eco Performance로 완성되었습니다.

회전저항을 줄여 CO<sub>2</sub>배출량은 크게 줄이면서도

주행능력은 더욱 향상시킨 놀라운 기술!

선택은 언제나 N'blue Eco입니다.



2011 지식경제부 주최  
디자인총원 주관 굿디자인 인증



2011 호주디자인  
AIDA) 인증



일본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2011 글로벌 고객만족도 티아워문 1위



지식경제부 선정  
한국 서비스 품질 우수 기업

**N'blue eco**

HELLO NEXEN | Vol.46 2012년 신년호

[www.nexentire.com](http://www.nexentire.com)



# HELLO NEXEN

04 당신을 응원하는 책  
06 넥센명인

## PURPLE

08 Nexen Best 3 Special  
 CP672 대박났어요!  
 엔블루 에코 체험단 발대식  
 파워볼로거가 말하는 넥센타이어

## Event

14 흥명보 장학재단 자선경기 후원

## Sports

16 2011 넥센타이어 RV챔피언십

## Global

20 NEXEN Global  
 R&D 1st Tech. Conference

## Best TPM

22 TPM의 트렌드세티 품질검사팀

## Enjoy

24 볼링 권하는 남자들  
 Nice 볼링동호회

## Tire

26 최첨단 바퀴의 시대

## Car

30 영화 속 자동차 PPL 이야기

34 Nexen Friends ①  
 타이어테크 청천집

## GREEN

35 나무이야기  
36 자연에서 배우다  
 단소 비단 지구, 경고등을 켜다

## 자연에서 놀다

40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축구

## 자연에서 만나다

44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임순례 대표

## 자연에서 맛보다

48 출출한 겨울밤의 친구들  
 감자 & 고구마

51 Nexen Friends ②  
 타이어테크 균화점

## RED

52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청도공장 생산1부

## 가족사진 찍는 날

56 OE기술팀 김무열 차장 가족  
 부노 조절법

## 갈 그리고 우리

58 시간과 공간의 틈  
 고성 상죽암길

## 참, 고맙습니다

62 함께라는 마법으로 이루어져라!

## 나눔 그리고 어울림

64 생활기술팀 단합대회

65 Nexen Friends ③  
 타이어테크 여주점

## BLUE

66 사진의 기술  
 스마트폰으로 똑똑하게 사진 찍기

## 운동의 기술

68 겨울 산행 주의점 123

## 관계의 기술

70 즐거운 인생을 부르는 효과적인  
 분노 조절법

## 생활의 기술

72 멋을 아는 남자의 외출 30분 전

## 사랑의 기술

74 뿌부싸움, 둘은 지켜가면서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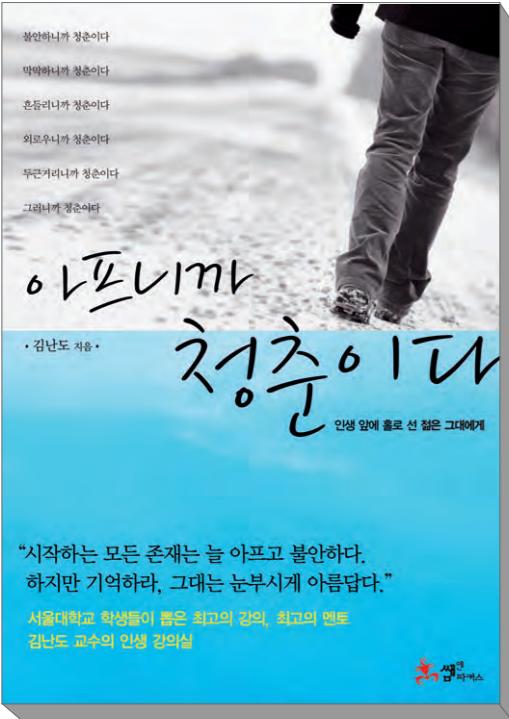
## 76 News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NEXEN**

2012년 신년호 통권 46호 | 발행인 이현봉 | 발행일 2012년 01월 17일 | 발행처 경남 양산시 유산동 30번지 넥센타이어(주) 경영관  
 리팀 | 담당 박수현(055-370-5283) | 기획 및 디자인(주)하이미디어P&G(02-795-3364) | 디자인 어진아, 장진숙, 김유진, 김지선 |  
 사진 사진과책(02-587-1102) | 프로세스 하이테크컴(02-741-3377) | 인쇄 삼조인쇄주식회사

#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젊은 그대를 위하여

글 박강철 내수영업담당 상무



“시작하는 모든 존재는 늘 아프고 불안하다.  
하지만 기억하라, 그대는 눈부시게 아름답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강의, 최고의 멘토  
김난도 교수의 인생 강의실



## 청춘의 성장통을 훔쳐보다

어느 날 아내로부터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추천받았다. 얼핏 청소년이나 20대를 위한 추천도서인 것 같기 때문에 한 권에 밀어두었다가 문득 읽고자 마음먹은 것은 회사의 발전과 더불어 늘어나는 젊은 직원들 때문이었다. 후배들과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배로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개인과 회사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과연 요즘의 젊은 청춘들은 어떤 아픔을 겪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하는가? 좌절을 겪고 난 후에는 어떻게 재도약하는가? 등도 궁금했다.

누구나 입사할 때는 나름대로 큰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인정받고 승진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조바심을 내다보면, 열심히 해도 마음과 달리 현실은 늘 지적과 실수 투성이다.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면 회사에서 나의 위치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딜레마에 빠지고, 그러다 점차 자신감을 잃고 좌절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젊은 후배들의 현실이 아닐까.

“불안하니까 청춘이다. 막막하니까 청춘이다.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외로우니까 청춘이다.  
두근거리니까 청춘이다. 그러니까 청춘이다.”

누구나 겪어 지나는 “청춘”. “청춘”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무한한 열정과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고 뭐든지 다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북받쳐 오르지 않는가? 나 역시 그 시절을 겪으며 수많은 꿈과 희망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 꿈을 향해 무모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도전을 했었고, 실패로 인한 아픔도 겪었으며, 스스로에게 실망과 좌절을 느꼈던 적도 있었다.

이 책을 읽으니 지난 나의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면서 구절구절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다.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 처음 인생을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시기의 막연함, 혼자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을 이 책 안에 담긴 이야기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에서 강조하듯이 우리 젊은 청춘들은 현재에 부딪혀보고 싸워야 한다. 책의 제목과 같이 젊은 후배, 그 대들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실수를 두려워해서 어떤 시도도 해보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후회로 다가올 것이다. 도전과 실수, 실패를 통해서 인생의 깊이를 알아야만 진정한 성공에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다.

## 실패와 좌절은 청춘의 특권

이 책은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인생이란 망망대해에서 나침반을 잃어버려 혼란스러운 청춘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책이다. 책을 통해 나의 가족 네센타이어의 젊은 후배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한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한다.

“모조록 나는 그대들이 더 어리석었으면 좋겠다. 너무 영리하게 코앞에 있는 단 1%의 이익을 좇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자신의 열정에 가능성은 묻어놓고 우직하게 기다릴 줄 아는 투자가였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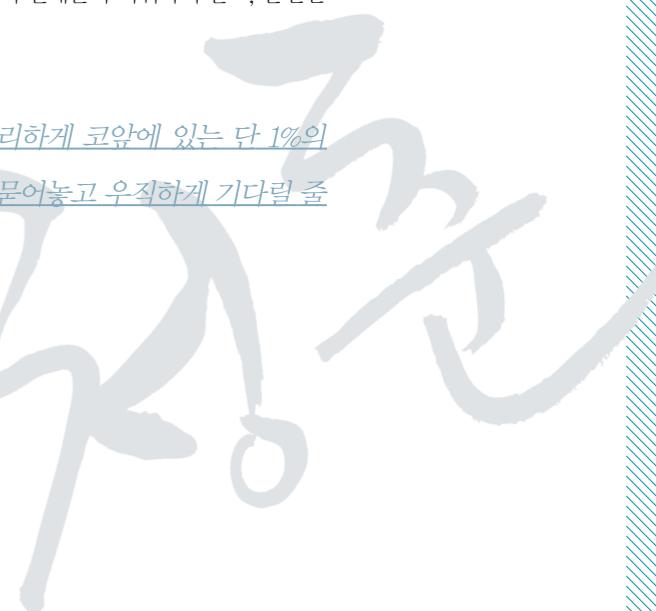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만 보는 근시인 경우가 많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적이 안나온다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젊은이에게 인생을 멀리 내다보라고 조언한다. 나 또한 그림하고 싶다.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더 나은 결과를 상상하면서 주어진 일에 하나하나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인생의 꽃을 찬란하게 피울 날이 올 것이라고.

새삼 이 책에 매료된 것은 젊은이들에게는 인생의 지침서이고, 청춘을 지난 세대에게는 과거에 대한 회상인 동시에 요즘 젊은이들의 애환과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 같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론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만 열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감을 나누는 청춘들의 지표가 되어주는 책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대로 본다면 우리 네센타이어는 지금 몇 살일까? 앞으로도 100년, 200년 꾸준히 이어갈 Next Century 네센타이어이기에 쑥쑥 성장하는 10대에 항상 머무르고 있지는 않을까? 이러한 마음가짐을 위해서라도 네센타이어 사우라면 모두 한 번씩 접해볼 만하다.

“멋진 실수를 해보라. 실수는 자산이다.”

“그리므로 고개를 들라. 그대의 계절을 준비하라.”

성장통을 앓고 있는 젊은이여, 아파도 좋으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픈 선배들이 많다는 걸 명심하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훗날 뒤돌아볼 때 회사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자신을 보며 뿌듯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 네센타이어의 젊은 그대, 후배들 파이팅! 네센타이어 파이팅! Ⓜ



젊은 후배, 그대들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실수를 두려워해서 어떤 시도도 해보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후회로 다가올 것이다.

도전과 실수, 실패를 통해서

인생의 깊이를 알아야만

진정한 성공에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다.





# 오늘도 생산1팀 이성재 팀장 마당발 아싸!

글 박수현 경영관리팀  
사진 류병문

입사한 지 올해로 23년. 현장작업자에서 직장, 대리를 거쳐 재료파트장으로 4년, 생산1팀장으로 1년 반을 근무했다. 새까맣던 머리카락은 하얗게 세고, 뾰족한 얼굴에도 어느새 세월의 흔적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바로 동료를 아끼고 소통을 중요시하는 그의 마음가짐이다.

처음 관리자의 위치에 올랐을 때부터 고민이 많았다. 여기가 자신의 자리가 맞는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은 꼬리를 물고 끝없이 따라왔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결심했다. 현장 사우들의 디딤돌이 되어 새로운 방향을 밝히는 등불로 거듭나겠노라고.

“자리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처음엔 많이 두려웠죠. 하지만 현장 사우들이 조금 더 편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그 또한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관리자라는 다른 결승점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싶어 쉬지 않고 달리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이제는 396명의 대식구를 이끌고 있는 이성재 팀장. 그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언제나 소통을 꼽는다.

“현장직은 몸이 많이 피로하잖아요. 하지만 분위기가 좋으면 즐겁게 일할 수 있거든요. 최소한 우리 팀원들만이라도 회사에서 편안함을 느꼈으면 했어요. 서로 허물없이 힘든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역시 낙낙한 큰형이 되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는 몸으로 부딪쳤다. 서로 부대끼며 정이 쌓이는 스포츠의 힘을 알기에 팀원들이 더 친밀해질 것이라 믿었다. 알고 보면 축구부터 족구, 배구까지 못하는 운동이 없는 만능스포츠맨이라 어렵기는커녕 즐거웠단다. 조장, 직장, 조합간부 모임의 출석은 기본이고, 짬이 날 때마다 함께 산에 오르고 공을 찼다. 그러자 팀원들이 달라졌다. 이 팀장을 무섭고 어려운 ‘상사’로 보지 않게 된 것이다. 이제는 사우들이 먼저 찾아와 ‘팀장님, 삼겹살 좀 사주세요!’ 라며 조를 정도다.

“제가 늘 외치는 건배사가 있습니다. 마당발 아싸! ‘마주보는 당신의 발전을 위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위하여!’라는 뜻이죠.”

우렁찬 건배사처럼 배려하고 화합하는 막강전력의 생산1팀. 내 식구 같은 팀원들이 있기에 이성재 팀장은 오늘도 즐겁게 외친다.

“생산1팀, 마당발!” “아싸!” Ⓜ

# CP672 대박났어요!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 CP672 내수 성공전략

하이퍼포먼스 프리미엄 타이어 CP672가 2011년 소비자들의 사랑을 둔뿍 받았다. CP672는 출시 이후 단숨에 전체 타이어 매출순위 2위로 치고 올라갔으니 그야말로 '대박' 이었다. 이러한 반응은 CP672가 국내 출시된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 빠르게 감지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글 임재우 내수마케팅팀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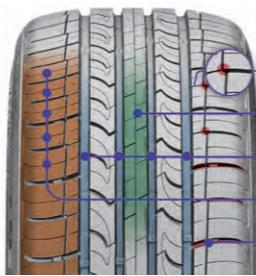


Harmonious Dynamic Performance Tire

# CP6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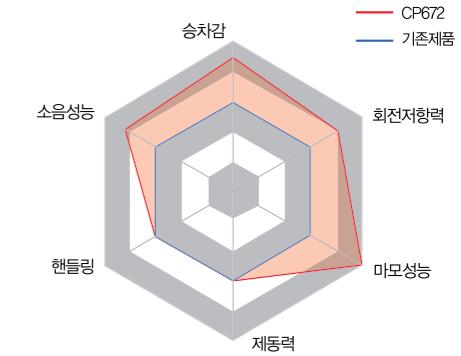
Be Comfort Be Silence Long Mileage

## • CP672 설계기술



- Round Tread Edge: 접지력 및 내마모 성능 향상
- 직선형 Semi Dual Rib: 고속주행 시 탁월한 조종응답성 발휘
- 직선형 4Wide 그루브: 빗길 배수 능력 및 제동 성능 극대화
- 저소음 5피치 Sequence: 뛰어난 저소음으로 안락한 주행성능 확보
- 윙그루브 디자인: 승차감 성능 강화 및 진동 최소화에 의한 소음감소

## • CP672와 기존제품 비교 그래프



## 홀잡을 곳 없는 No Claim Tire

타이어에 요구되는 성능은 일반적으로 승차감, 소음, 배수성, 핸들링, 마모, 브레이킹 그리고 패턴디자인까지 매우 다양하다. 국내시장에서는 승차감과 소음, 그리고 마모성을 가장 중요시한다. 물론 기타 요소들도 중요하나 소비자들이 타이어를 구입할 때는 앞의 세 가지 성능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편이다. 특히 컴포트(Comfort) 시장에서 기본형이 아닌 프리미엄 제품군이라면 위의 세 가지 성능은 '좋은 타이어'와 '나쁜 타이어'를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구매요소이다. 이러한 국내 시장 트렌드와 니즈에 맞추어 개발한 것이 바로 CP672. 개발 컨셉부터 뛰어난 승차감, 높아운 저소음, 경제적 마일리지를 타깃으로 했다. 또한 47개의 규격(UHP 29개/HP 18개)으로 국내 거의 모든 차종에 장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최근에는 OE(신차용 타이어)에도 UHP55시리즈 이하 16인치 이상)가 많이 장착됨에 따라 UHP 규격을 더욱 다양화했다. 소비자를 상대로 조사한 평가항목을 보면 예상대로 승차감과 소음, 그리고 마일리지에 최고 점수를 주고 있다. 전반적인 평가는 우리나라의 지형, 기후특성, 운전형태에 가장 적합하고 가격대비 실용성이 훌륭하다는 것이다. 대리점주의 반응도 좋고 재구매율도 상당히 높다. 그만큼 성능과 가격에서 고객과 대리점을 모두 만족시켰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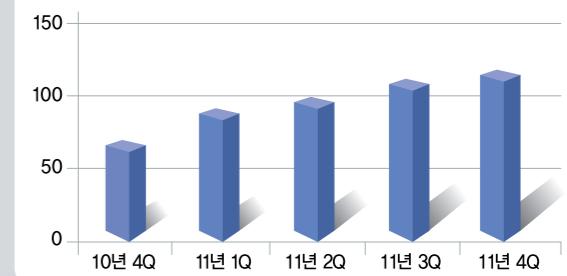
미이다.

이는 실적으로 알 수 있다. 출시 첫 분기에 약 7만 개로 시작해 현재는 11만 5,000개까지 판매되고 있는 명실공히 히트상품이다.

## 밀착 전략으로 내수시장을 공략하다

통상적으로 신제품이 나오면 좋은 호텔이나 고급스러운 장소에서 론칭 세레모니를 개최한다. 하지만 CP672는 Entry Premium급으로 좋은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의 컨셉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차별화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신제품 발표회를 호텔이 아닌 각 지역별 자사에서 대리점주 중심의 지역밀착형으로 진행했고, 시기도 2회(10년 9월 / 11년 2월)로 나누어 시장반응 사전 점검 및 제품의 시장인착까지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다. 무엇보다 단순히 제품의 성능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차원을 넘어 Sales point를 중심으로 소비자 판매 시 대리점주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친숙도를 높였다.

## • CP672 국내 판매 실적 (단위: 천 개)



CP672는 2012년에도 분기평균 판매목표가 15만 개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CP672의 경쟁제품은 없지 않을까? 넥센타이어는 앞으로도 국내전용 프리미엄 제품을 꾸준히 출시할 계획이다. CP672 와 같은, 아니 그 이상을 뛰어넘는 Best Product가 탄생하기 기대해 본다. ④

## • CP672 제품 컨셉

구분	CP672
규격	인치 14 ~ 18 인치
	시리즈 40 ~ 65 시리즈
	출시규격 47 규격
패턴형상	Non-Directional
성능	속도지수(내수) H/ V급
	세그먼트 Entry Premium
컨셉	목표고객 경, 준, 중형 보유 차종 Comfort 지향 고객
	Target 차종 국내외 경, 준, 중형 프리미엄 차종 (뉴SM3~5, YF소나타, 뉴이언데, K5 등)

# 녹색 타이어 신고

엔블루 에코 체험단 발대식

## 달려보자 씽씽!

글 이경수  
사진 이명호



넥센타이어는 고유가와 환경보호라는 업계 화두에 발맞추어 지난 8월 친환경 타이어 엔블루 에코를 출시했다. 최장의 미밀리지와 뛰어난 승차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연비효율이 높은 엔블루 에코는 출시 이후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밸 빠른 자동차 마니아들 사이에서 고효율의 친환경 타이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체험단 모집에도 많은 신청자가 몰리며 그 인기를 입증했다. 자동차에 대한 애정과 타이어를 향한 관심으로 뜨거웠던 엔블루 에코 체험단 발대식 현장을 살펴보자.

**N blue ECO**

### 직접 체험하는 친환경 퍼포먼스

초겨울 바람이 매섭던 지난 11월 19일, 인천 스피드웨이에서는 넥센타이어의 차세대 친환경 제품인 엔블루 에코 체험단 발대식이 열렸다. 주말 아침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이곳을 찾은 20여 명의 체험단은 세계적인 주제의 친환경·고효율 타이어를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다는 소식에 설레는 표정이 역력했다. 행사를 진행한 마케팅카뮤니케이션팀 최영섭 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의 이벤트를 통해 우수한 제품들을 소비자와 함께 나눌 계획”이라며 “엔블루 에코뿐 아니라 넥센타이어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환영사를 밝혔다. 이어 상영된 홍보 영상은 엔블루 에코의 기술력과 친환경 퍼포먼스를 집약해 보여줌으로써 미래를 생각하는 넥센타이어의 차세대 비전을 제시했다. 간단한 제품 설명과 체험 일정에 대한 브리핑 후에는 체험단의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는데, 기존 친환경 제품과의 차별성, 타이어와 연비의 상관관계 등 꼼꼼하고 구체적인 질문들로 엔블루 에코에 대한 체험단의 열렬한 관심과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



지구의 미래를 향해 달리는 엔블루 에코

차세대 친환경 타이어인 엔블루 에코는 에너지 손실을 감소시키는 타이어 구조 설계기술과 신소재를 채용한 친환경 저연비의 차세대 컴파운드 적용으로 기존 제품 대비 5.7%의 연비개선 효과를 이루었다. 더불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 제품 대비 5.4% 감소시킴으로써 10년간 20만km를 주행할 경우, 나무 314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에 해당하는 약 1.76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뿐만 아니라 최적화된 트레드 패턴을 도입해 회전저항 테스트에서도 기존 제품보다 약 30%의 우수한 저연비 성능을 보였고, 트레드 수명 또한 30% 향상되었다.

### 에코의 힘으로 가득 찬 서킷 질주

발대식이 끝난 뒤 체험단은 엔블루 에코를 장착하고 직접 서킷을시험주행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다. 레코드라인을 따라 시속 60~80Km의 속도로 서킷을 두 바퀴 돋 후 자유주행 시간을 통해 마음껏 스피드를 즐기는 체험단의 모습은 자동차 마니아들답게 거칠이 없었다. 네비게이션 기획 일을 하고 있어 평소 자동차에 관심이 많다는 체험단 임성은 씨는 “서킷 주행은 처음인데 굉장히 스릴 넘치고 재미있었다. 스피드웨이 질주는 체험단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명의 체험단은 발대식 후 4주 동안 엔블루 에코를 장착하고 제품의 마모성능, 연비성능, 승차감 등을 테스트해 본 뒤 자신이 느낀 체험 후기와 사진을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 소개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동호회연합 홈페이지 ‘카마니아(www.carmania.net)’에서도 이들의 글을 모두 볼 수 있다.

이번 체험단 활동은 소비자들이 직접 엔블루 에코의 향상된 성능을 체험하고, 평가함으로써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넥센타이어는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단 운영을 통해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열린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Mini Interview 꼼꼼한 아줌마 파워를 보여 줄래요!  
엔블루 에코 체험단 신선아 씨



Q. 유일한 여성 체험단인데, 응모 동기와 소감은?

자동차 커뮤니티 운용자의 추천을 받아서 응모하게 되었어요. 운전을 하면서도 타이어는 잘 물렀는데 체험단이 되니 넥센타이어라는 회사가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더 친근해진 기분도 들고요.

Q. 엔블루 에코의 성능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무래도 연비 절감효과에 기대가 커요. 타이어만 바꿔도 기름 값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주유량과 주행거리를 기록해서 전과 비교해 보려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승차감에 대한 반응도 조사해 보고 싶어요.

Q. 체험단으로서의 각오 한 마디?

제가 체험단 중 유일한 여자이고 아줌마거든요. 자동차에 대한 상식은 다른 분들보다 부족하겠지만, 꼼꼼하고 섬세한 체험기로 아줌마 파워를 보여주고 싶어요. 엔블루 에코 체험단의 활약, 기대해 주세요!



## 네센타이어를 직접 체험한 블로거들의 수다

엔블루 에코 & N8000 이야기

백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만큼,  
백번 보는 것 또한 한 번의 체험을 넘보지 못할 것이다.  
자동차라면 자다가도 일어나는 블로거들의 네센타이어 직접 체험기를 통해 자랑스러운 우리 제품의 면면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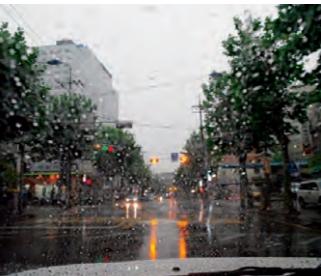
### 타이어 하나로 자동차가 달라졌다—엔블루 에코

| 글 스윙맨 블로거(<http://smoker3.blog.me>)

지난해 10월, 엔블루 에코를 장착하기 위해 타이어테크 번동점을 찾아갔습니다. 아직 트레드 패턴이 원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심각한 상태는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기사님이 타이어를 보시더니, “어휴, 왜 이리 오래 타셨어요?”라면서 걱정하시더군요. 타이어는 고무가 주원료이기 때문에 수명이 있는데 운전경력이 짧다 보니 위험성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일반타이어의 경우 생산년도 이후로 3년이 적정수명이라는 것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엔블루 에코는 그 이름답게 4년까지 안정적으로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엔블루 에코를 봤을 때 눈에 띠는 부분은 비대칭의 트레드 패턴입니다. 사실 그 외의 부분은 타이어 조심자인 제가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라 교체해주시는 기사님께 엔블루 에코에 관한 여러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진동과 소음을 모두 잡은, 그러면서 가격까지 합리적으로 책정된 굉장히 잘 나온 타이어라고 평가하시더군요.

엔블루 에코는 일단 재질 자체가 상당히 부드러워 안쪽을 잡고 벌리면 거의 뒤집힐 정도로 유연했고, 땅에 튀겨봤더니 고무공처럼 통통 튀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는 듯 잠깐 튀다가 멈췄습니다. 다른 타이어와 같이 굴려보면 활선 오래 구르는 특징도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적어도 제가 교체하기 전까지는 단 한 차례의 항의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엔블루 에코

실제로 운행해 보니 확연히 차이점을 느낄 정도여서 왜 진작 타이어를 바꾸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더군요. 타이어

교체 후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차 자체의 파워와 액셀을 밟은 후 굴러가는 느낌입니다. 기존에는 액셀을 밟아도 웬지 힘없이 나가는 느낌이었다면, 타이어만 교체했을 뿐인데 힘있게 차고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셀을 밟은 후 발을 떼도 횡당할 정도로 앞으로 주욱 나갑니다. 특히 비 오는 날에는 제동력이 좋아진 것이 체감될 정도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얼마 전 차를 수리할 때도 빠달라고 했었는데, 타이어 교체 후 브레이크를 밟으니 즉각 반응이 느껴졌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지나갈 때의 느낌도 확연하게 달립니다. 이전의 타이어가 오래 타서 경화가 됐는지는 몰라도 둔덕을 넘을 때 충격이 컸는데 엔블루 에코로 교체한 뒤에는 충격이 꽤 줄어들었습니다. 엔블루 에코를 제대로 느껴보려면 1~2년은 타봐야 하겠지만, 일단 교체한 이후로는 대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쫀득한 그립감이 좋다—N8000

| 글 우산건설 블로거(<http://us-gs.com>)

얼마 전 넥센 N8000 체험단에 선발되어 N8000을 체험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N8000은 넥센의 UHP(고성능)타이어 중 N9000 다음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타이어지요. 제게 N8000은 지금 태고 있는 차량의 세 번째 타이어입니다. 첫 번째는 순정타이어인 런플랫 타이어, 두 번째는 굿이어LS2000, 세 번째가 이번에 체험한 N8000입니다. 첫 번째 타이어에서 두 번째 타이어로 교체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느낀 부분은 승차감이었죠. 저처럼 둔감한 사람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런플랫 타이어와 LS2000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승차감의 차이가 느껴지는 타이어였습니다.



N8000

그리고 이번에 N8000을 사용하면서 처음 느꼈던 점 역시 승차감의 차이입니다. 전에 쓰던 타이어보다 약간 딱딱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LS2000은 컴포트 타이어에 가깝고 N8000은 스포츠 타이어이니 그립을 위해 사이드 월을 강화하고 트레드 패턴 역시 간단해지면서 오는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노면소음 역시 예전보다는 조금 더한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원인(사이드 월과 트레드 패턴)에서 오는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행안정성이나 그립력, 특히 코너링의 경우 예전보다 많이 안정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출퇴근하면서 항상 지나는 약간 깊은 코너가 있습니다. 과격하게 코너를 돌진 않지만 나름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횡G(횡가속도 : 코너링 시 밖으로 쏠리는 힘)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돌아 나오는 코너입니다. 예전에 쓰던 타이어로 약 80km에서 엑셀링을 하면서 돌아 나올 땐 소위 말하는 뒤가 흐르는 느낌이 있었는데 N8000의 경우는 그런 느낌이 덜하고 약 10km정도 속도를 오버했을 때 비로소 이전에 80km에서 흐르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립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 같았습니다.

승차감과 성능은 타이어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반비례의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좋겠지만 둘 다 만족시켜줄 타이어는 존재하기 어렵겠죠. 따라서 운전하는 환경이나 스타일에 따라 자신에 맞는 타이어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끝으로 N8000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넥센타이어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Share the Dream Football Match 2011 Share the Dream Football Match 2011 Share the Dream Football Match 2011

## 소외된 어린이들의 산타클로스

홍명보장학재단 자선경기 후원

## 추억과 꿈, 희망 나누기

넥센타이어가 '홍명보장학재단'의 든든한 후원자로 나섰다. 12월 18일 열린 자선 경기 'Share the Dream Football Match 2011'의 공식파트너로 참여한 넥센 타이어는 60여 명의 어린이들을 경기장으로 초대해 잊지 못할 추억과 함께 꿈과 희망을 선물했다.

글 이경수  
사진 이맹호

## Share the Dream Football Match 2011

### 타이어로 전하는 사랑의 손길

지난 12월 18일 홍명보장학재단이 주최한 자선경기 'Share the Dream Football Match 2011'이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넥센타이어는 이날 행사의 공식파트너로 참여해 서울의 4개 복지기관에서 어린이 60여 명을 초청, 함께 경기를 관람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넥센타이어는 메인 스폰서십을 비롯해 배구, 레이싱 등의 스포츠를 후원해온 넥센타이어가 이번에는 홍명보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함께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산타가 되었다. 넥센타이어는 초청된 어린이들에게 모자와 응원풍선, 축구공 등을 나누어 주고, 경기장 내에 'Nexen, Share the Dream Zone'을 조성해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추운 날씨를 고려해 실내에서 4쿼터의 5:5 끽살 방식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홍명보 감독을 비롯해 안정환, 이천수, 윤빛가람, 야구선수 김현수, 개그맨 이수근 등 다양한 출연진이 '사랑팀'과 '희망팀'으로 나뉘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사했다. 특히 2002 태극전사들만 참가한 3쿼터는 선수들의 화려한 개인기와 골 세리모니로 월드컵 당시의 흥분을 고스란히 되살리는 시간이었다. 요셉천사의 집 윤태현 어린이는 "평소에 좋아했던 축구선수들을 직접 볼 수 있어 신기하고 재밌다"며 골이 들어갈 때마다 친구들과 기쁨의 함성을 터뜨렸다.

글로벌마케팅 담당 송주호 전무는 "매년 겨울 산타클로스처럼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홍명보 감독의 자선경기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웃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힘이 되는 넥센타이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넥센타이어와 홍명보의 기분 좋은 만남**  
넥센타이어는 지난 12월 28일 서울 방배동 사무소에서 이병우 넥센타이어 부사장, 홍명보 홍명보장학재단 이사장, 강학봉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타이어 전달식을 진행했다. 'Share the Dream Tire'라고 이름붙인 이 타이어는 넥센과 홍명보장학재단이 함께 진행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8일 펼쳐진 자선경기 'Share the Dream Football Match 2011' 중 터진 골의 개수만큼 자동차 한 대분(4개)에 달하는 타이어를 적립, 기증한 것이다. 전달된 총 100개의 타이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타이어 교체가 필요한 복지단체들에 전해질 예정이다.



01

02



02 '희망팀'과 '사랑팀'으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되었다.

03 자랑스러운 2002 태극전사들도 자선경기에 참여했다.

04 넥센타이어와 함께 응원하는 어린이들의 활기찬 모습



## 관중과 함께 호흡하는

2011 넥센타이어 RV챔피언십

### 최강의 RV 스피드 레이싱

지난 10월 30일 전남 영암서킷에서는 6월 첫 라운드를 시작한 넥센타이어 RV챔피언십이 5라운드 최종전으로 올해의 대단원을 장식했다. 국내 모터스포츠 대중화와 레이싱 붐을 선도한 것으로 평가받는 넥센타이어 RV챔피언십 대회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자.

글 류승렬 마케팅카뮤니케이션팀 대리  
사진 HASF



### 세계 유일 온로드 RV · SUV 대회 ‘넥센타이어 RV챔피언십’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불리는 F1 코리아그랑프리가 2회째를 맞으며 지난 10월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3일 동안 전남 영암에는 총 16만여 명의 관람객이 몰려 국내에서도 부쩍 높아진 모터스포츠의 인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모터스포츠 대회는 몇 개일까? 이번 헤드라인 형식의 소규모 대회를 제외하면 보통은 CJ 슈퍼레이스, KSF(현대/기아 코리아페스티벌), 한국타이어 DDGT, 그리고 넥센타이어 RV챔피언십의 4개 대회를 꼽는다. 각 대회의 성격이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넥센타이어가 국내 4대 모터스포츠 대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타이어회사로서 큰 의미가 있다.

넥센타이어 RV챔피언십은 세계 유일의 온로드 RV · SUV 대회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06년 첫 번째 대회를 시작으로 6년째 꽃꽂이 자리를 지켜내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회의 선수들은 F1 드라이버처럼 수백억 원의 연봉이 있는 것도, 광고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자동차가 좋고 레이싱이 좋아서 참가한 아마추어 선수들이다. 평소엔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 등을 하는 일반인이지만 대회가 열리는 날에는 한 명의 RV선수로 서킷에 나선다. 그렇다고 실력을 과소평가했다간 큰 코 다칠 노릇이다. 이들 중 다수가 기업의 레이싱팀 소속 선수로 활약했던 실력파이기 때문이다.

### 2011년, 새로운 변화의 시작

그동안 국내 모터스포츠는 선수 위주의 운영으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여왔다. 관중에게 어떠한 흥미요소도 제공하지 않는 모터스포츠 대회는 팬들에게마저 외면받는 천덕꾸러기로 불만을 사기 일쑤였다. 그래서 2011 넥센타이어 RV챔피언십은 그 어느 때보다 관중을 위한 변화를 많이 시도했다. 클래스 간 통합이 이뤄졌고, 경기방식도 변경되었다. 또 가솔린 승용 클래스와 인라인스케이트 대회를 함께 열어 다양한 팬 확보에 주력했다.

특히 올해는 4라운드부터 국내외 유수 브랜드 차량들이 참가하는 가솔린 승용 클래스를 신설해 다양하고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경기장을 방문한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RV 차



랑과는 또 다른 매력의 가솔린 승용 클래스는 선수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켜 5라운드에는 4라운드에 비해 무려 3배에 가까운 차량이 참가하는 등 내년 대회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5라운드 특별 이벤트로 진행된 인라인스케이트 대회도 빼놓을 수 없다. 넥센타이어는 대회가 치러지는 전남 영암 인근의 목포시 인라인협회와 연계하여 일정 중에 인라인스케이트 대회를 함께 개최했다. 남자부·여자부·가족부의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약 300여 명의 참가자가 몰리며 대성황을 이뤘다. 대회 참가자들은 F1 경기장을 인라인스케이트로 누비는 이색 체험을 통해 국내 모터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대회 이후에도 경기를 관전하거나 이벤트에 참가하는 등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넥센타이어 RV챔피언십을 함께 즐겼다.

이밖에도 대리점주 초청 사진 촬영, 모터바이크 스피드 페스티벌, 무료 타이어 점검 등의 이벤트를 마련해 RV챔피언십에 다양한 팬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넥센타이어는 한국교통안전교육센터와 함께 경기장을 찾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일일 '어린이 교통안전학교'를 열어 다양한 시청각 교육 자료를 활용, 교통안전 지식과 행동법 등을 알려주며 매년 증가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올바른 교통의식도 심어주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다.

### 늘 다음이 기대되는 RV챔피언십

2012년, 넥센타이어 RV챔피언십은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RV·SUV 부문과 가솔린 승용 부문, 두 개의 큰 축을 바탕으로 대회를 더욱 짜임새 있고 알차게 구성할 계획이다. 관중을 배려한 세심한 운영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모터스포츠 대회로 거듭날 넥센타이어 RV챔피언십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선수와 팬의 즐거움을 극대화할 것이다.

넥센타이어 RV챔피언십은 고작 6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이 대회이다. 아직 미흡하지만 가능성 또한 무한하다. 끊임없는 변화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4대 모터스포츠 대회에 오른 것이 그 증거이다. 어린아이가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6살배기 넥센타이어 RV챔피언십이 훌륭한 대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모터스포츠 대회가 되는 그 날까지 넥센타이어 임직원과 팬들의 아낌없는 응원을 기대한다. ⑨

01 4라운드 우승자 이승우 선수

02 RV챔피언십의 치열한 레이싱 모습

03 이번 대회 특별 이벤트였던 인라인스케이트 대회

04 넥센타이어는 이번 대회의 인기를 기반으로 7회 대회의 성공을 다짐했다.



03

2011 NEXEN TIRE RV Championship

01



02



03

6살배기 넥센타이어 RV챔피언십이

훌륭한 대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모터스포츠 대회가 되는 그 날까지

넥센타이어 임직원과 팬들의

아낌없는 응원을 기대한다.

04



# 세계 최고 타이어의 Nexen Global R&D 1st Tech. Conference 비전을 공유하다



지난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양산 본사 연구개발본부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에 위치한 해외연구소와 Tech. Conference를 추진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개발 기술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등 향후 넥센타이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임과 동시에 세계 연구진들이 하나 되는 소중한 자리였다.

글 김상훈 연구기획팀 주임연구원  
사진 유럽연구소

## Nexen Global R&D 1st Tech. Conference



### 전 세계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007년 'Global Top 10 R&D Center'라는 본사 연구개발본부의 중장기 비전 달성을 위해 해외에 연구소를 설립하여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현지 시장의 동향과 기술을 신속히 받아들이는 계획을 수립했다. 중국연구소는 바로 그 첫걸음이었다. 중국에는 이미 청도공장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생산성은 확보되었지만 안정적인 생산능력을 다지기 위한 기술 지원이 필요했다. 더불어 우수한 현지 인재 확보와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 등을 위해 중국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2008년에는 미국 오하이오 주 애크라운에 두 번째 해외연구소를 설립했다. 미주 현지 시장에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동향을 분석하고 미주용 제품 개발을 담당함은 물론, 글로벌 OE(신차용 타이어)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세 번째 해외연구소는 2010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문을 열었다. 미주 지역과 더불어 넥센타이어의 주력 시장인 유럽에서는 선진 인력을 통해 기술을 받아들이는 한편, 현지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해외 매거진 테스트 대응, 제품 테스트 지원 등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 Global ONE Team

### 역동적인 힘을 체험하다

각 연구소가 안정되자 본사 연구개발본부는 연구소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가 필수라는 판단 하에 해외연구소와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컨퍼런스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양산 본사에서 진행되었다. 본사 40명, 미국연구소 6명, 유럽연구소 6명, 중국연구소 4명 등 총 56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먼저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 및 경험 등을 논의했다. 신규 채용된 해외연구소 엔지니어의 타이어 관련 노하우, 지식, 연구·개발 경험 등을 듣고 RE·OE(교체용·신차용 타이어) 개발 및 매거진 대응, 타이어 평가 기술 제공 및 지원, QP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R&D 활동 능력 강화 등에 대한 해외연구소 운영 전략 등도 들을 수 있었다. 선행개발팀 조영곤 연구원은 "해외 인력과 기술력 교류를 위해 한 달여 간 사내 E-mail을 통해 정보를 교류했지만 온라인을 통해 얻는 정보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더 좋은 기술 및 해외 평가 정보를 교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본사 신규 공장인 창녕공장과 양산공장, 그리고 연구개발본부 실험실 투어도 진행되었다. 미국연구소 정영만 차장은 "창녕공장은 마치 영화에서나 볼지한 거대한 건설 현장이라 신공장의 역사를 성공으로 이끌고 가야 할 미션과 책임감이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며 "무서운 속도로 변화와 진보를 거듭하는 역동적인 힘을 체험했고, 변화와 무한한 도전의 장으로 향하는 당사의 생생한 발전상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친선 도모를 위해 양산시 종합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함께 즐겼다. 미국 George 연구소장은 "컨퍼런스 전 부실한 체력 탓에 축구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하고 보니 부상은커녕 본사 연구진과 동료애를 키우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본사 임직원의 체력과 순발력에 모두들 놀랐고 미국연구소 체력 수준을 더 보강해 재도전하겠다"고 아심찬 각오를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OE 추진을 위한 통합 미팅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해외연구소 운영 프로세스 소개 등의 시간도 있었다.

### 세계의 연구진이 하나 되다

장장 5일간에 걸쳐 진행된 컨퍼런스는 서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무사히 마무리 되었으며 해외연구소나 본사 연구개발본부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

한민현 연구개발 본부장은 "조직이 점점 성장하고 규모가 커질 때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이라며 "다른 문화, 다른 조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의 조직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속감, 일체감 그리고 마음을 열어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Global ONE Team'이라는 이번 컨퍼런스의 구호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Global Top 10, 매출 3조, 창녕공장 가동 등 넥센타이어에는 아직도 많은 도전과제들이 버티고 있다. 하지만 넥센타이어는 이 모든 과제들을 훌륭히 해결할 '사람'을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도 넥센타이어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Global Top 10 R&D Center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 최고의 품질로 품질검사팀 TPM의 트렌드세터 승부한다

품질검사팀은 생산 공정의 가장 마지막에 있다. 누구보다도 소비자와 가깝고 그래서 더 긴장을 풀 수가 없다. 완벽한 검사 실현으로 '품질불만 제로화'라는 팀 방침아래 안과 밖으로 귀를 기울이는 품질검사팀에게 TPM은 꼭 필요한 수단이다.

글 박수현 경영관리팀  
사진 류병문

### 승승장구 TPM을 시작하다

"우리가 만든 타이어를 내가 탈 수도, 우리 가족이나 지인이 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안전한 타이어를 제공하고 싶거든요."

품질검사팀 최인철 대리는 TPM의 시작을 더 좋은 품질의 타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코스였다고 회상한다. 타이어 완성도에 있어 전체 공정 중 막바지인 품질검사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느꼈기에, 넥센타이어에 TPM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2006년 이전부터 TPM을 시행하고 있었단다. 더 나은 품질의 타이어를 만들기 위해 고심하던 품질검사팀 직장들의 아이디어였다.

처음엔 청소를 하거나 활동판을 꾸미는 소소한 활동으로 시작된 품질검사팀의 TPM. 그러나 사무실 외벽과 지저분한 설비에 그림을 그리는 등 점차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클린팩토리 라인인 2공장 전체 벽화도 품질검사팀의 솜씨다. 남자 사우들이 대부분이라 군대에서 익힌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기' 실력이 TPM 활동에 쓸쓸한 도움이 되어 초반에는 그야말로 승승장구였다.

어느 정도 개선된 환경에 만족하자 다음에는 설비로 시선이 갔다. 하지만 기기나 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그들이 당장 기계를 점검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때 공장혁신사무국이 생기면서 물꼬가 터졌다. TPM 전반에 대한 교육은 물론, 설비에 대한 지식들이 함께 전해지자 TPM에 대한 사우들의 이해도가 크게 높아졌고 제안 활동도 활기를 띠었다.



품질검사팀은 마킹 핀 축소를  
제안함으로써 인력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 일석다조의 효과, 타이어 마킹 제안

남경욱 사우는 그 즈음 제안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장 작업자로 검사 작업을 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에는 귀찮았죠. 가뜩이나 바쁜데 스스로 할 일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TPM이라 이름붙이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더라고요. 미세한 먼지가 불량으로 직결될 수도 있어 깨끗한 환경은 기본이고, 설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작업 효율도 좋아지니까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가장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깨달음이 생겼죠. 그게 바로 제안이에요."

비란스검사 공정은 크게 소핑과 검사, 그리고 마킹 이렇게 세가지로 구성된다. 소핑은 검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정이고, 마킹은 검사결과를 표기해주는 공정이다. 대부분의 자동차회사들은 예민한 자동화 공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작은 오차로 설비의 오류가 찾은데, 품질검사팀은 이 마킹이 문제였다. 납품 중인 자동차회사마다 마킹의 요구조건이 달라 한 곳의 기기가 마킹을 인식해 오류가 계속 발생한 것이다. 그 회사에 납품하는 타이어만 따로 모아 마킹을 지우는 수작업이 불가피했다.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타이어에 흙집까지 남아 팀원들 사이에 비효율적이라는 불만이 커졌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최대리와 남 사우가 찾아낸 방법은 마킹하는 핀을 작게 만드는 것. 마킹의 크기가 작아지면 자동화 기기가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 예상은 적중해 불편했던 수작업 공정이 사라지고, 작업자의 피로도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품질 개선도 덤으로 얻었다.

#### 최인철 대리

우리가 만든 타이어를 내가 탈 수도,

우리 가족이나 지인이 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안전한 타이어를 제공하고 싶거든요.



지난해에도 TOP 진단에서 7번이나 수상하고

그 기세를 몰아 올해는 TOP 진단

최우수 부서로 뽑혔다. 하지만 팀원들은

순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Best TPM



남경욱 사우

이제 저희에게 순위를 나누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단지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내서 전체 품질을

높이는 데에 힘쓸 뿐이죠.

### 세계 최고의 타이어를 꿈꾸며

양산공장에서 제안 건수가 가장 많은 품질검사팀. 분임조의 실적도 가장 높다. 지난해에도 TOP 진단 일곱 번 수상으로 우수부서에 뽑혔으며 그 기세를 몰아 올해는 TOP 진단 최우수 부서와 제안 최우수 부서가 되었다. 하지만 팀원들은 순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사실 현재의 TPM은 평준화되고 있어요. 타이어가 어떤 한 공정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각의 공정들이 모두 합쳐져야 완제품 타이어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TPM 자료를 모든 공정이 공유하고 나눠요. 어떤 공정만이 뛰어나다고 할 수 없죠. 그러니 이제 저희에게 순위를 나누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단지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내서 전체 품질을 높이는 데에 힘쓸 뿐이죠."

이들의 꿈은 모든 검사 공정을 자동화하는 것이다. 각각의 검사 라인에 타이어가 모델 별로 구분되어 들어오면 업무 효율이 훨씬 높아질 테니 욕심이 난다고. 그래서 전자동화 공정으로 이루어진 창녕공장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 현재는 협소한 공간이 벽으로 와 달지만 넥센타이어의 트렌드세티인 품질검사팀은 꾸준한 제안으로 이를 가까운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다.



## 볼링 권하는 볼링동호회 남자들

운동신경 좋기로 유명한 넥센타이어 사우들이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다. 넥센타이어 볼링동호회 Nice의 선수들이 양산지역 한국노총배 근로자체육대회 볼링부문 1위를 차지한 것. 45명의 동호회원 중에서 도 “볼링 미치갱이”로 불리는 선수들이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다.

|  
글 하은경 사진 류병문  
참여사우 김종필 직장(UHP파트), 이상신 사우(PCR파트), 이윤희 사우(컴파운드개발팀), 박태화 사우(제품디자인팀)

### 스트라이크로 스트레스를 부순다

누구든 ‘미치갱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을 리 없겠지만 넥센타이어 볼링동호회 Nice에서 만은 예외다. 이는 아내의 따가운 눈총에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강심장이며, 교대 전후의 알토란같은 시간을 오직 10개의 볼링핀을 노려보는 데 투자한 이만이 얻을 수 있는 명예이다. 양산지역 한국노총배 근로자체육대회 볼링부문 1위의 공을 세운 김종필 직장, 이상신 사우, 이윤희 사우도 12명의 미치갱이 중 일부이다. 도대체 볼링의 어떤 즐거움이 그들을 홀딱 빠져들게 하는 걸까. 이상신 회장은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이고 특히 승부욕을 자극하는 면이 매력이라고 설명한다.

“스트라이크를 칠 때의 그 쾌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가능하고, 누구나 할 수 있으니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기엔 최고의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볼링은 회시가 즐거워지는 이유기도 하다. 이제는 너무 자주 만나서 탈이라는 동호회원들. 자기 조나 팀원이 아니면 친해지기 어려운데 이날 만난 4명의 사우는 각기 다른 파트에서 일하지만 볼링을 통해 단짝이 되었다. 95년에 입회해 벌써 16년째가 되는 김종필 직장은 동호회 내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이라는 스트라이크도 쳤다.

김종필 직장은 실력 있는 선수이자 스카우터, 감독의 역할까지 하는 든든한 만형. 이상신



회장은 김종필 직장을 경험해 많아 선수들이 가장 치기 어려워하는 초구를 도맡는 베테랑이라고 설명했다. 김 직장은 감독답게 회원들에 대한 사랑도 빼놓지 않았다.

“우리 이상신 회장은 승부욕과 게임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윤희는 조금 덜령거리지만 집중력 강한 사람과 팀을 짜놓으면 점수를 이끄는 사람이고, 태화는 열정과 체력이 좋으니 기본기만 더 닦으면 크게 활약할 겁니다. 시간이 되어 우리만 나왔지만 Nice 회원들 모두 화목하고 볼링 실력도 훌륭합니다.”



01 단골 볼링장에서 환하게 미소짓는 Nice 동호회원들

02 첫 번째와 두 번째 퍼펙트의 주인공 박태화, 이윤희 사우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03 승부욕과 리더십이 강한 이상신 회장

04 얼마 전 퍼펙트를 기록해 기분이 좋은 이윤희 사우

### 300점 만점, 퍼펙트를 꿈꾸다

볼링은 10번에 걸쳐 각 10개의 핀을 쓰러뜨리는 게임으로 총 300점 만점이다. 처음엔 그저 핀을 쓰러뜨리는 재미로 시작했다가 스트라이크에 욕심이 생기고 점차 300점, 즉 퍼펙트를 꿈꾸게 된다. 이날 함께한 박태화 사우가 바로 Nice 최초의 퍼펙트 주인공.

“10번의 스트라이크까지는 많이들 성공하지만, 보너스로 주어지는 11번째부터 무진장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공을 들고 레인에 서면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그래도 퍼펙트가 되는 순간의 기분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이 따라줘야 하고요. 이 윤희 사우와 단짝인데 서로 조언도 해주고 라이벌도 되니 더 빨리 실력이 늘었습니다.”

이윤희 사우는 Nice의 퍼펙트 2호, 동호회원들이 단골로 가는 볼링장 벽면에 ‘퍼펙트 이 윤희’라는 편침막이 걸려 있다. 이윤희 사우는 퍼펙트는 기분도 좋지만 동호회 상금에, 일년간 게임비 50% 할인 등 특별대우도 받는다고 자랑했다. 이쉽게도 298점에 그친 이상신 회장과 김종필 직장은 퍼펙트에 관해선 할 말이 없다지만 대회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양산지역 한국노총배 근로자체육대회에서 1위를 했을 때도, 2010 인디안 세정배 전국대회에서 3위 입상을 했을 때도 두 사람은 선수로 나섰다.

“세정배 경기는 직장인 경기로는 국내에서 가장 큅니다. MBC에서 중계까지 한 아주 중요한 대회였는데 지금 생각해도 떨립니다. 코앞까지 카메리를 들이대는데 조명은 뜨끈뜨끈하지, 어찌나 긴장했는지 다리가 떨리고 스텝이 꾋이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3위를 차지했으니 역시 양산에서 넥센타이어가 볼링을 가장 잘 친다는 소문이 날만도 하다. 나아가 올해는 1위를 노릴 작정이다. 볼을 들었으면 챔피언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포부가 대단하다.

이상신 회장은 대회에 더 많이 참가해서 넥센타이어와 Nice의 실력과 명예를 높이고 싶다고 했다. 하나의 산을 넘을 때마다 결속은 강해지고 실력은 견고해지는 까닭이다. 그것이 선배들이 가꿔온 21년의 전통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했다.

## 새로운 소재와 기술로

친환경 시대의 도래와 타이어의 변신

## 환경과 타이어의 공존을 꾀하다

글 박진희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세계 자동차 시장이 변화를 겪고 있다. 맥킨지의 2011년 예측에 따르면, 2020년에는 전기 구동 장치를 장착한 차량이 전체 차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차량의 전기화는 2030년까지도 계속되어 자동차 3대 중 2대는 전기로 구동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20세기 초 반짝 등장했다 사라진 전기자동차가 21세기의 주역으로 부활하고 있다. 동시에 자동차 시대를 열었던 가솔린자동차는 역사의 저편으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미 자동차 연비와 더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자동차 구매를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 표시가 의무화되었다. 이 모든 변화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위기의 영향이다. 꾸준히 증가하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막지 못하면 생태계 전체에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이다. 205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2^{\circ}\text{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석유에 의존한 현재의 수송 에너지 전환은 절대적이다. 이러한 위기감이 자동차 동력의 전기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 환경의 위기, 타이어를 바꾸다

변화와 위기는 자동차뿐 아니라 타이어 기술 개발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1973년 석유 위기는 미국과 유럽 등 자동차 시대를 이끌어가던 선진국들이 연비에 주목하게 만들었고, 이는 래디얼 타이어(Radial Tire)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었다. 타이어코드가 바퀴 진행방향에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는 래디얼 타이어는 1946년 당시 미술 렌시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지만 유독 미국에서는 보급이 지체되고 있었다. 도로와의 흡착성이 우수해 고속 주행에 유리하고, 조종 안정성이나 코너링 능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노면과의 저항이 적어 연료를 절약할 수 있었던 래디얼 타이어는 석유 파동 후에야 미국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연료 절약의 이점이 래디얼 타이어 보급 확산의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최근 가속되고 있는 환경과 기후의 변화는 기술 개발의 목표를 뚜렷하게 이동시켜 놓았다. 타이어 기술 개발의 목표가 수명 연장, 제동 능력, 조종 안정성에서 환경 친화적 타이어 개발로 옮겨간 것이다. 이런 변화는 제도적으로 강제되고 있는데, 유럽연합에서는



55

모든 변화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위기의 영향이다.

꾸준히 증가하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막지 못하면

생태계 전체에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이다.

205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2^{\circ}\text{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석유에 의존한 현재의 수송 에너지 전환은 절대적이다.

이러한 위기감이 자동차 동력의 전기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55

2011년부터 연료 절약형 타이어 장착을 의무화하고 2012년 11월부터 타이어 에너지라벨을 부착하도록 명시했다. 타이어에 부착되는 에너지라벨은 소비자에게 타이어의 접지력, 소음도 및 에너지 효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항목별 가장 효율이 높은 제품은 녹색으로, 가장 낮은 제품은 붉은 색으로 구분되도록 했다. 에너지라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타이어에 비해 마찰 및 회전저항이 낮아 연료비가 적게 들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친환경성을 높이려면 타이어 마모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데,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공기 중 미세먼지의 7% 가량은 타이어가 데워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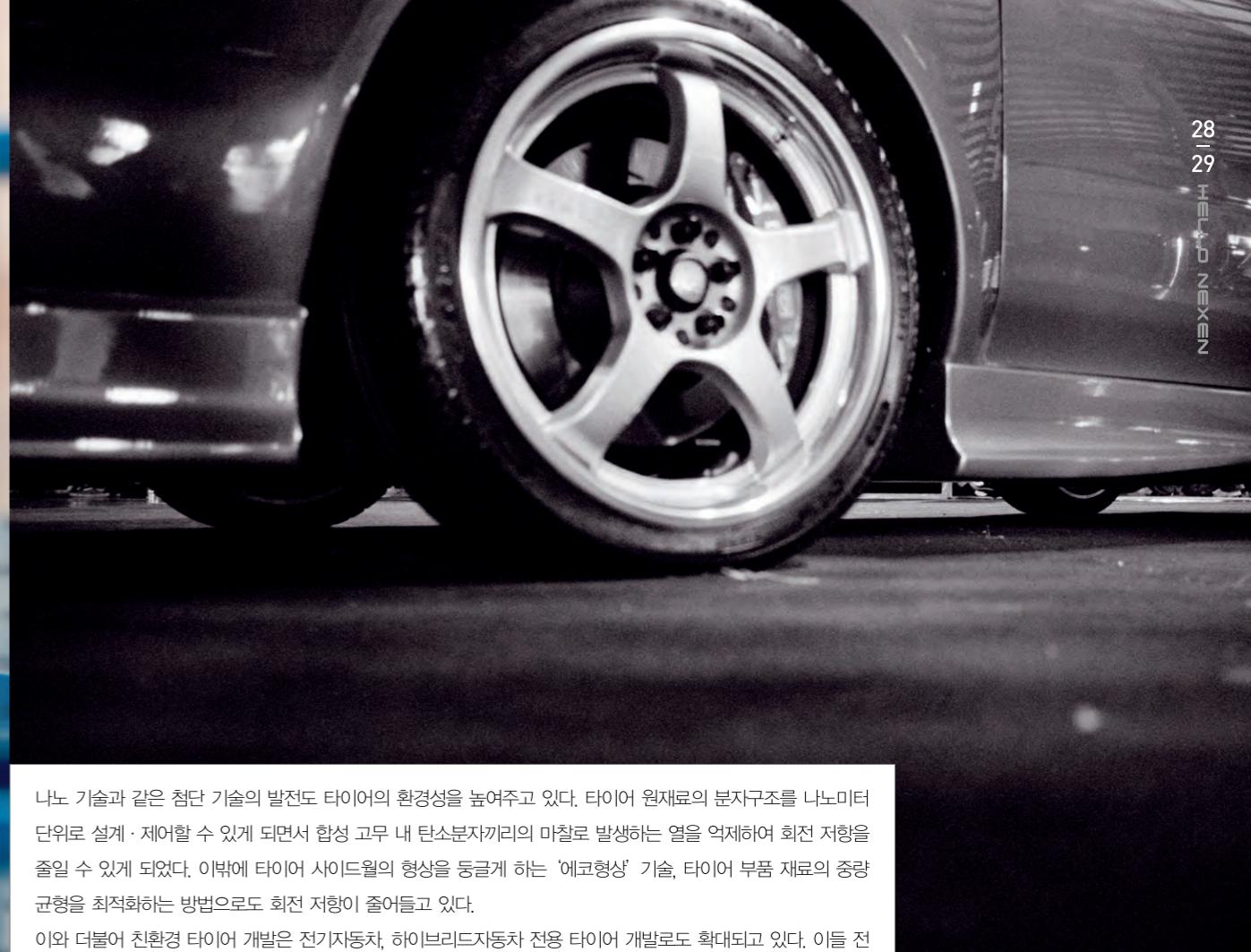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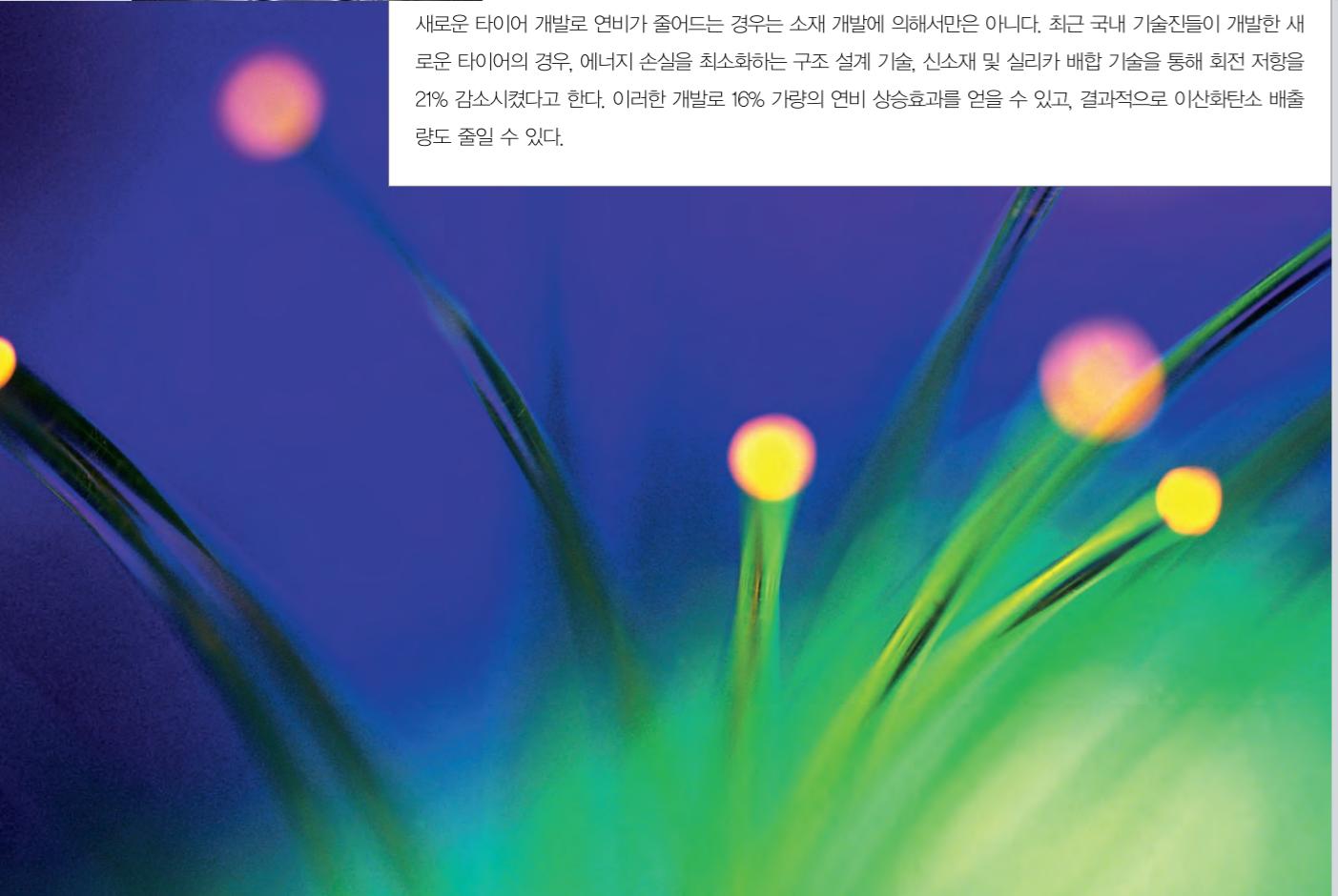
### 친환경 소재를 찾기 위한 시도들

타이어 기술 개발에서 보이는 변화는 우선 마모율을 낮추기 위한 소재 개발 연구이다. 국내에서 시도되고 있는 소재 개발 연구는 1)기초 고무에 마모를 최소화하는 성분을 추가한 기능성 고무 개발 2)카본블랙의 입자 크기를 줄이도 입자끼리 촘촘히 뭉치도록 해 고무를 더 강하게 하는 소재 개발 3)콘크리트의 자갈과 모래를 연결하는 시

멘트 같은 역학의 고무 결합제 개발 등이다. 소재 개발 연구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마모율이 줄어들어 타이어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도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고분산 실리카 컴파운드, 내마모성 듀얼폴리머 등을 적용해 회전 저항이 우수하고 마모도 적은 타이어가 생산되어 자동차 연비가 향상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마모뿐만 아니라 아예 유해 성분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킨 타이어도 개발되고 있다. 한 예로 일본의 타이어 제조업체에서는 고무에 첨가했던 석유화학 요소 대신 천연재료인 오렌지 오일을 섞어서 유해 요소를 제거했다고 한다. 이 제품은 또한 기존 석유화학 고무 타이어보다 지면에서 오는 저항감도 적어 연료 절감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타이어 소재가 미치는 환경 영향성을 고려한 연구는 1990년대 카본블랙을 대체할 실란이 결합된 실리카 이용 방법을 개발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기술력이 곧 에코다

새로운 타이어 개발로 연비가 줄어드는 경우는 소재 개발에 의해서만은 아니다. 최근 국내 기술진들이 개발한 새로운 타이어의 경우,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조 설계 기술, 신소재 및 실리카 배합 기술을 통해 회전 저항을 21% 감소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개발로 16% 가량의 연비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



나노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의 발전도 타이어의 환경성을 높여주고 있다. 타이어 원재료의 분자구조를 나노미터 단위로 설계·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합성 고무 내 탄소분자끼리의 마찰로 발생하는 열을 억제하여 회전 저항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 타이어 사이드월의 형상을 둥글게 하는 '에코형상' 기술, 타이어 부품 재료의 중량 균형을 최적화하는 방법으로도 회전 저항이 줄어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타이어 개발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전용 타이어 개발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들 전기 구동 차량에는 저소음·저중량의 전용 타이어가 필요한데, 이러한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용 전용 패턴 개발, 초경량 구조 설계 등의 기술이 핵심이 되고 있다.

### 폐타이어, 새로운 에너지원이 되다

생산에서 폐기까지, 타이어 라이프사이클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출해보면 제품의 사용 단계가 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회전 저항과 마모율을 줄이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폐타이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이나 수질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때문에 최근 타이어 제조사들은 폐타이어 회수 및 재활용 연구에도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폐타이어 재활용으로 생산된 재생고무를 다시 사용하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카본블랙인데, 국내 제조사 중에는 카본블랙을 왕겨 분말이나 분쇄된 호두 껌데기 등 천연 재료로 대체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곳도 있다.

폐타이어를 분해해 얻는 부산물 중 오일을 추출하여 에너지원으로 재사용하는 일 또한 친환경적인 활용 방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폐타이어를 열로 분해하는 데 소모되는 에너지의 경제성과 열분해 후 나오는 카본의 처리 문제이다. 폐타이어의 열분해 방법에는 직접 가열과 간접 가열이 있는데, 직접 가열은 폭발의 위험과 제품에 카본이 많이 섞이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반면 간접 가열식은 낮은 열효율로 연료 소모가 많아 경제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최근에는 불연성 가스를 사용하여 폭발 위험을 줄이고, 열분해 과정에서 발생한 카본을 공장 기동 연료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폐타이어 처리 과정의 친환경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는 바이오로 녹색 타이어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주행 중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타이어 회전 저항을 낮추는 기술부터 폐타이어 처리 방법 개선에 이르기까지, 타이어 전 주기에 걸친 친환경성 강화가 기술 개발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 더 이상 조연이 아닌

스크린 속 자동차 PPL

## 주인공이다

최근 영화 속에서 자동차가 굵직한 조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동적인 매력을 가득 담은 탈것은 이제 숨 가쁘게 움직이는 액션이나 SF 장르의 영화에서 빠져서는 안 될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크린 곳곳을 누비는 자동차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살펴보자.

글 김준형 (이투데이) 산업부 기자



〈007 시리즈〉의 히어로 제임스 본드는 수억 원대에 이르는 값비싼 수퍼카를 타고서도 언제나 조연하다. 영화 속에 잠깐 등장하는 그 차들은 화려한 액션을 연기하다 반파되거나 폭파되기 일쑤지만 역시나 주인공은 눈 하나 깜작 않는다. 값비싼 자동차의 가치를 몇 배나 넘어서는 주인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반면 단순히 주인공의 뒤에 서서 배경에 머무는 것이 아닌, 주인공 이상의 가치와 비중을 차지하는 영화 속 자동차도 다양하다. 그렇다면 화려한 외관과 기능을 뽐내며 주연을 넘어서는 존재감으로 스크린을 장식했던 자동차는 어느 회사의 어떤 기종이었을까? 여기, 영화가 끝난 뒤 주연 배우보다 더 뚜렷하게 각인되었던 연기파 자동차들을 소개한다.



>>>

### 트랜스포터

#### 아우디를 위한, 아우디에 의한, 아우디의 영화

2003년 첫 선을 보인 영화 〈트랜스포터〉 시리즈는 2편 '익스트림'과 3편 '라스트 미션'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한 영화의 후속 시리즈가 줄지어 등장한다는 것은 전편 성공을 대변하는 동시에, 관객을 매료시킬 뚜렷한 매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트랜스포터〉 속 주인공의 자동차가 바로 그 예이다.

전편에 이어지는 주인공 제이슨 스테뎀의 무표정한 냉소는 알 수 없는 매력과 함께 '대머리도 멋져 보일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무엇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언가를 배달한다'는 영화의 컨셉트에 맞추어 멋들어진 자동차가 줄지어 등장한다. 1편에서는 BMW 7 시리즈, 2편에서는 아우디 고급 세단의 최고봉 A8이 나섰다. 이쯤 되면 3편에 등장할 차가 짐작이 된다.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다.

그러나 관객들의 기대와 달리 〈트랜스포터〉 3편에서 나온 자동차는 아우디 A8의 고성능 버전인 S8였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우린 고급차니까 영화 따위에 출연하지는 않겠어!" 라며 자존심을 세운 탓이다. 콧대 높은 메르세데스 벤츠 덕분에 아우디는 〈트랜스포터〉 시리즈를 대변하는 자동차가 되었고, 〈트랜스포터〉 시리즈 또한 '아우디를 위한 영화'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 영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곳곳에 아우디의 매력과 장점이 노출된다. 2편에서 비단가 모래사장을 마음껏 휘젓는 A8의 모습은 4륜구동인 '콰트로'의 힘을 보여주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3편에서도 역시 S8이 4륜구동의 접지력을 앞세워 추격해오는 벤츠 E-클래스를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화려한 액션을 선보여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당초 세 번째 시리즈에 등장할 것으로 예견됐던 벤츠 S-클래스에 대한 감독 올리비에 메가턴의 불만이 녹아든 장면이다. 평소 아우디에 관심 많은 마니아라면 이 영화의 DVD를 통해 다시 한 번 그 매력에 흠뻑 빠져들어도 좋을 듯하다.





이니셜D

&gt;&gt;&gt;

### 아버지가 물려주신 도요타의 드리프트 액션

일본 애니메이션 원작을 홍콩에서 리메이크한 영화 <이니셜D>를 보고 나면 주인공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도 자동차가 주는 임팩트는 꽤 오랫동안 뇌리에 남는다. 제목의 D가 뜻하는 것처럼 자동차 드리프트가 주요 소재인 덕분에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름난 고성능 후륜구동 스포츠카들이 죄다 등장한다. 반면 주인공의 차는 아버지가 물려준 구식 해치백, 도요타 AE86. 그러나 주인공은 후륜구동인 AE86의 장점을 살려 굽이치는 내리막길을 멋진 드리프트로 거침없이 달린다. 뛰어난 드라이빙 기술이 있다면 비싼 고성능차를 앞설 수 있다는 것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이다.

실제로 뒤쪽이 가벼운 AE86은 영화 속에서 뒷바퀴를 코너 바깥으로 미끄러뜨리는 '드리프트' 기술을 기가 막하게 선보인다. 영화와 원작 애니메이션의 뜨거운 인기 덕분일까? 도요타는 2011 도쿄모터쇼에서 AE86을 계승한 차세대 스포츠카 GT86을 선보이기도 했다. 영화의 완성도를 따지기보다 등장하는 자동차와 주인공들의 멋진 드리프트 모습만으로도 마니아들에게는 보는 즐거움이 가득한 명작이다.



백 투 더 퓨처

### 25년 전 드로리안, 2011년으로 타임 슬립

1987년 개봉한 영화 <백 투 더 퓨처>는 시간 이동이 가능한 타임머신을 소재로 한 SF영화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주인공 마티 맥플라이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괴상한 발명가 브라운 박사가 개발한 타임머신 자동차를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 영화 속 타임머신은 DMC의 스포츠카 드로리안이다. 하늘을 향해 열리는 걸윙 도어를 장착한 드로리안은 1980년대를 기준으로 미래형 첨단 스포츠카를 상징한다. 영화 속에서 갖가지 장비를 가득 실고 등장하지만 실제 드로리안은 심플한 멋이 기득한 2도어 쿠페다.

무엇보다 드로리안은 현대차 포니를 디자인한 이태리 디자이너 주지아로의 작품으로, 포니의 밑그림이 된 '포니 쿠페'의 디자인을 DMC가 가져와 드로리안이 탄생되었다. 영화 속에서 드로리안은 날렵하게 뻗어나간 앞 보닛과 해치백 스타일의 암팡진 뒷모습을 지녔는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실눈으로 보면 드로리안의 곁모습 곳곳에서 현대차 포니의 디자인 DNA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다른 영화에 등장하는 더 멋진 차도 많지만 굳이 25년 전 SF영화를 다시금 언급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판매 부진으로 단종되었던 드로리안이 그 모습 그대로 곧 다시 선보일 예정이라는 소식 때문이다. 차 안팎에 아이폰을 위시한 첨단 IT 기술을 가득 차용하지만 곁모습만큼은 영화 <백 투 더 퓨처> 속 그대로를 유지한다. 25년 전 실제 드로리안이 마침내 '백 투 더 퓨처'를 하는 셈이니 실로 역사적인 이벤트가 아닐까 싶다.

## The Transporter, Initial D, Italian Job, Back to the Future... All about Cars in the Film



&gt;&gt;&gt;

### 이탈리안 잡

#### 작은 고추가 맵다! 귀여운 미니의 대반란

영화 <이탈리안 잡> 역시 자동차 마니아라면 되짚어봐야 할 영화다. 아직 국내에 미니가 출시되기 전이라서 개봉 당시에도 세간의 관심이 컸다. 새 미니 모델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이 영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덕분에 무난하게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이탈리안 잡>에 등장하는 미니는 구형과 신형, 두 가지. 특히 영화 초반 금고 전문가로 분한 여자 주인공 샤를리즈 테론이 구형 미니를 경쾌하게 몰면서 등장하는데, 작고 양증맞은 미니에서 내리는 늘씬한 모습이 아이러니하면서 묘한 매력을 가득 담고 있다.

영화 속에서 미니의 진짜 매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은 주인공들이 금괴를 쟁여 도주할 즈음부터 등장한다. 무거운 금괴를 싣고도 원하는 만큼의 성능을 내기 위해 3대의 미니가 튜닝을 거쳐 업그레이드되는데, 서스펜션을 탄탄하게 세팅해 무거운 금괴를 싣고도 주저앉지 않고, 뛰어난 무게와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능도 화끈하게 개선된다. 이렇게 미니의 환골탈태 장면은 고스란히 스크린에 담겨져 관객들에게 작은 고추 미니의 우수함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



## 진심을 담아

타이어테크 청천점  
Give to you!

넥센프린즈 1

글 김한울  
사진 이맹호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기분이 좋다. 타이어테크 청천점 편인재 대표와의 만남이 그려졌다. 인터뷰 일정을 잡기 위해 통화한 것이 다였는데 보자마자 어쩐지 편안하고 친숙했던 건 그의 따뜻한 첫인상 때문 아니었을까.

십수 년 정비와 타이어 일을 했던 노하우로 청천점을 오픈한 지는 약 2년 3개월. 그리 긴 기간이 아님에도 단골손님이 꽤 된단다. 한 번 왔던 고객도 다시 찾는 청천점의 매력은 '친절'. 편 대표는 영업점을 찾는 고객들에게 선한 미소와 자상함을 선물한다.

"고객이 원하는 타이어를 성심성의껏 정직하게 제공하는 것이 저희 일 아니겠습니까. 청천점의 운영 원칙은 정직과 친절입니다"

34살 젊은 사장 특유의 대부진 패기가 느껴진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느냐고 묻자 주변에 열심히 홍보해 주는 고객들, 또 1만km 를 탈 때마다 타이어를 갈라 와서는 말동무가 돼주는 고객들을 꼽으며, 백 번 고맙다는 말로도 부족한 애정을 표현했다.

타이어를 사랑하기에 평생 직업으로 삼았다는 편인재 대표. 그는 고객이 상담을 청할 때마다 솔직하게 응한다. 이는 청천점이 사랑받는 이유이자 고객에게는 값진 선물이다.

"싼 타이어를 추천하거나 질이 좋지 않은 타이어를 속여 팔면 이윤은 남겠지만, 나 만큼은 진심이 있고 정직함이 빠진 판매를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실제로 판매 리스트를 살펴보니 프리미엄 타이어가 가장 많았고, 이러한 기준 덕분에 재작년에는 넥센타이어연도상 '우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감사함을 담아 지난 한 해 청천점을 찾아준 고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올해도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손님들이 만족할 때까지 장비나 비용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믿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서비스로 항상 보답하겠습니다."

타이어테크 청천점은 2012년에도 고객과의 로맨스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고객은 편인재 대표의 친절에 반해, 편 대표는 고객들의 끊임없는 신뢰에 반해서 말이다. ■

## 자연에서

배우다

놀다

만나다

맛보다

### 숲을 이루었을 때 가장 멋진

소나무과의 늘푸른바늘잎 큰키나무 *Abies holophylla*

전나무는 여러 그루가 한데 모여 숲을 이루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있는 월정사 전나무 숲과 전북 부안의 내소사 전나무 숲은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이렇듯 절 입구에 단골로 서 있는 이유는 아마도 하늘을 뚫을 듯한 그 기상 때문이 아닐까요. 양 옆으로 죽 늘어선 자태는 신성한 절집에 들어서는 사람들을 입도하고도 남습니다. 전나무는 바늘잎나무 가운데 가장 키가 크게 자라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나무일 것입니다. 특히 흰 눈이 내린 겨울 산에 푸르게 우뚝 선 모습은 다른 어떤 나무도 떠나올 수 없답니다.



인간을 향한

## 탄소 비만지구, 경고등을 켜다

### 지구의 S.O.S

언제부터인가 지구가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길어진 여름, 축한의 겨울, 흔한 재앙이 되어버린 폭우와 쓰나미를 통해 이 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메이데이, 메이데이. 인간이 미처 눈치채지 못한 사이, 지구는 지금도 푸른빛을 잃어가고 있다.

글 이은희 과학 칼럼니스트  
사진 이맹호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름살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걱정거리와 골칫거리들도 늘어나곤 한다. 여기에 날이 갈수록 배 둘레와 내장 여기저기에 쌓여가는 지방 덩어리들은 가뜩이나 무거운 삶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내장 사이사이에 쌓인 지방 덩어리들은 몸매를 망가뜨릴 뿐 아니라, 건강 까지도 해칠 수 있는 고약한 것들이니 할 수만 있다면 얼른 털어버리는 것이 좋다.

인간은 자연을 닮는다고 했던가. 인간이 점점 늘어나는 뱃살과 내장지방으로 고민하는 사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역시도 부담스럽게 늘어난 무언가로 인해 점차 이상을 일으키며 병들어가는 중이다. 바로 지난 세기, 급격하게 늘어난 온실기체가 그 주인공이다.

### 두 얼굴의 온실기체를 막아라

원래 온실기체란 지구에서 방출되는 열이 우주공간으로 발산되는 것을 막아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기체를 말한다. 지방 역시 과한 것이 문제일 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인 것처럼 온실기체도 원래는 지구상 모든 생명체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존재이다. 만약 열을 붙잡아 두는 온실기체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 15°C 정도로 급격히 떨어진다. 이 정도로 낮은 기온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다양한 생명체가 지구상에 존재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즉,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온실기체에 생명을 빚진 셈이 된다. 하지만 무엇이든 과하면 모자람만 못하듯이,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난 온실기체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일으켰고, 이는 현재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상 대이변을 불러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탄, 염화불화탄소 등이 있지만, 이 중에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와 메탄이다. 이는 인류가 지난 200여 년간 대기 중으로 유입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양을 획기적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 탄소를 줄이는 작은 실천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합니다.  
난방 1도를 낮추면 가구당 연간 231kg의 CO<sub>2</sub>가 줄어듭니다.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BMW=자전거(Bicycle), 버스(Bus), 지하철(Metro), 걷기(Walking)

친환경 제품을 구입합니다.  
녹색소비는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도 줄입니다.

물을 아껴씁니다.  
샤워시간을 1분 줄이면 CO<sub>2</sub> 7kg이 줄어듭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개인 컵을 사용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올바른 운전습관을 유지합니다.  
급출발, 급가속을 할 때마다 1원씩 낭비됩니다.

전기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합니다.  
플러그를 뽑으면 연간 한 달 전기료는 공짜입니다.

나무를 심고 가꿔니다.  
소나무 1그루는 연간 5kg의 CO<sub>2</sub>를 흡수합니다.

자료출처 : 탄소포인트제([www.cpoint.or.kr](http://www.cpoint.or.kr))



대기 중으로 유입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줄이고  
식물들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늘려야 한다.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탄소 함유 물질의 연소를 줄여야 한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거의 모든 연료원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에 이들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곧 다이어트의 시작이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상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오랫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1832년까지 약 284ppm으로 유지되었던 이산화탄소는 인류가 산업화를 시작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약 384ppm으로 100ppm 정도 증가했다. 메탄의 경우, 증가량 자체는 이산화탄소에 못 미치지만 온실효과율은 이산화탄소의 21배에 달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주요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와 메탄은 모두 탄소(C)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화합물이기에, 21세기는 이들 기체의 발생량을 줄이는 '탄소 다이어트'가 절실히 필요하다.

#### 끄고, 걷고, 심고, 줄이고

탄소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 다이어트에 왕도가 없다는 건 지방과 온실기체가 다르지 않다. 먼저 주요 온실기체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예로 들어보자. 이산화탄소( $\text{CO}_2$ )는 탄소(C)를 포함한 물질이

대기 중의 산소( $\text{O}_2$ )와 만나 연소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해 대기 중에 유입되고,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체내로 흡수한다. 다이어트의 정석 공식대로라면 입력보다 출력이 많아야 성공한다. 즉, 이산화탄소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기 중으로 유입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줄이고, 식물들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늘려야 한다.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탄소 함유 물질의 연소를 줄여야 한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거의 모든 연료원-나무, 석탄, 석유, 가스 등-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에 이들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곧 다이어트의 시작이다.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대치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이나, 현재로서는 이보다는 가능한 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실내외 냉난방 온도를 실외 기온에 가깝게 맞추고,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근거리에서 생산된 우리 농작물을 소비하고, 쓰지 않는 플러그를 뽑아놓으며,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에너지 절약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조사에 따르면 자가용 대신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매일 3.5kg, 수입산 대신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으로도 약 6kg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삼립을

보호하는 것 역시 탄소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자가용 한 대가 1년 동안 내뿜는 약 8.1톤의 이산화탄소는 소나무 숲 1㏊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 온실기체 걱정 없이 자동차를 몰고 자 하는 이들이라면 앞서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메탄( $\text{CH}_4$ )도 마찬가지이다. 메탄은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로, 메탄 다이어트 실천 방안 중 상당수가 인간이 그토록 원하는 지방 다이어트와 맞물린다. 인위적으로 생산되는 메탄의 대부분이 우리의 식생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음식물 쓰레기와 쇠고기를 얻기 위해 키워지는 가축들의 배설물 등에서 연간 1억 톤 이상의 메탄이 발생한다고 월드워치연구소는 추산하였다.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채식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메탄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음식을 적절한 양만 먹고 채식을 즐긴다면 다이어트도 저절로 될 터이니 이거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 인류의 미래를 위한 지구의 경고

비만 인구가 늘어나던 초기에 다이어트는 권고 사항일 뿐이었지만, 비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자 정부가 나서서 초등학교의 탄산음료 자판기를 없애고 식품에 열량 표시를 실시하는 등 점점 강제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비만의 증가로 인한 국민 건강의 손상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온실기체 감소 움직임 역시 최근 들어서 점점 강제성이 더해지고 있다. 제품에 인증마크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표기해 소비자들이 저탄소제품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탄소인증제를 비롯, 차량 매연저감장치 의무화,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탄소세(carbon tax) 부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실시 등 온실기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이 권고에서 의무로 이행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구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음을 뜻하는 것이다. 뱃살이 늘어난다고 해서 당장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처럼, 온실기체의 증가가 지금 우리 삶을 위협하지는 않는다 해도 후손의 삶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우리가 온실기체 저감을 위해 왜 지금부터 노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한 번 불어난 뱃살처럼 이미 늘어난 온실기체는 쉽게 줄어들지 않는 법이니까. ⑩

## 푸른 빛 바다에서 돌고래를 만나다

울산 장생포

### 고래문화특구

바다로 간 포유류, 고래를 향한 아이들의 시선은 늘 호기심으로 가득하다. 동물도감에 서 육중한 몸집의 고래를 접할 때나, 만화 속에서 '푸우~' 하고 숨을 뿐는 고래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신화처럼 숨을 쉬는' 진짜 고래를 만나러 울산 고래문화 특구로 간다.

글 최연지

사진협조 장생포 고래박물관



# 자연에서 놀다



### 장생포와 고래의 인연

울산역에서 장생포로 가는 길은 대형 공장 일색이다. 그 삭막한 풍경을 10분쯤 내달려 목적지에 당으니 순식간에 공업도시에서 고래도시로 분위기가 바뀐다. 곳곳에 고래 벽화와 조형물들이 눈에 띠어 누구라도 장생포와 고래의 인연을 짐작할 수 있겠다.

장생포는 한때 고래잡이의 전진기지로 이름 꽤나 알렸던 곳. 그러나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1986년 포경 금지령이 내려졌고, 쇠퇴한 포경업의 자리에 '고래 관광'이라는 새로운 테마가 채워졌다. 2005년 국내 최초 고래박물관의 개관을 시작으로 2009년 고래가 회유하는 울산 앞바다에 고래관광선을 띠웠고, 2010년에는 살아있는 돌고래를 관찰하는 국내 유일의 고래생태체험관을 선보였다. 울산 남구는 장생포 일대를 '고래문화특구'로 지정하고 고래관광지의 메카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매서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장생포항을 앞에 두고 고래 박물관과 고래생태체험관이 사이좋게 마주보며 서 있다. 그리고 두 건물 사이 광장에는 푸른 하늘을 바다 삼아 헤엄을 치는 돌고래 조각상과, 한때 울산 앞바다를 주름잡던 포경선이 당당한 위용을 뽐내고 있다.



01

## 100% 리얼 고래 버라이어티, 고래생태체험관

'고래특구'의 정체성을 각인시켜주는 조형물을 뒤로 하고 곧 바로 고래생태체험관으로 향했다. 면적 2,600m<sup>2</sup>, 지상 3층 규모의 고래생태체험관은 개관 이래 하루 1,000명 이상이 꾸준히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한다.

체험관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아치형 해저터널이 눈길을 사로 잡는다. 사방으로 푸르스름한 빛이 퍼져 있어 바다 속 분위기가 실감 난다. 계단과 동굴처럼 가운데가 뺑 뚫려 어느 곳으로 눈을 돌려도 일렁이는 잔물결이 느껴진다. 몽롱한 기분으로 유리관 속의 고래를 가만히 관찰한다. 도감에서나 봤던 진짜 고래들이 유유히 물속을 미끄러져 헤엄쳐 다닌다.

"키가 2m, 몸무게가 200kg을 훌쩍 넘지요. 돌고래 중에서 가장 큰 '큰돌고래' 과에 속합니다. 머리가 뾰족해 수영하는 속도도 빠른 편이고, 훈련을 하면 재롱도 곧잘 부립니다."

체험관의 돌고래들은 일본의 대표적인 포경마을 타이지초에서 들어온 것들이다. 타이지초 마을 역시 포경 금지령이 내려진 이래 포경 산업은 쇠퇴했지만, 이처럼 돌고래를 길들여 세계 각지에 판매하는 것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단다. 총 네 마리를 들여왔지만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탓인지 한 마리가 시름사를 앓다 죽어 현재는 세 마리뿐이다.

해저터널에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수족관이다. 1층 해저터널

이 유리관 속의 돌고래를 관찰하는 것이었다면, 2층에서는 돌고래가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돌고래는 1분에 세 번씩 호흡을 위해 물 위로 머리를 내보이는데, 이때 부리와 얼굴은 물론 운이 좋으면 분기공까지도 관찰할 수 있다.

4D 영상관으로 걸음을 옮기면 귀여운 안경을 건네 준다. 이 안경을 쓰고 영상을 보면 온갖 바다생물들이 입체적으로 변신해 눈앞에 불쑥불쑥 나타난다. 해저 탐사를 위해 바다 속으로 들어간 작은 탐사선에서 향고래와 대왕오징어의 결투를 관찰한다는 내용이다. 탐사선이 대왕오징어의 공격을 받을 때는 의자가 좌우로 흔들리고, 대왕오징어와 향고래가 결투를 벌일 때는 물방울이 사방에서 튀는 등 다양한 효과 덕분에 실제 바다 속을 탐험하는 것 같은 짜릿한 기분이 듈다.

짧지만 강렬한 10분짜리 영상을 보고 영상관을 나와 3층으로 오른다. 장생포항이 훤히 보이는 아외 전망대다. 실제로 장생포항은 근래 포경산업 본거지일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잡이 터로서도 가치가 매우 높다.

## 고래의 흔적을 한눈에,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에서 진짜 고래를 보고 듣고 느꼈다면, 이제 고래의 흔적과 역사를 차분히 되짚어볼 차례. 맞은편 고래박물관으로 걸음을 옮긴다. 고래박물관은 사라져가는 포경 유물을 보존,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포경역사관, 귀신고래관, 어린이체험관



03

04

01, 03, 04 거대한 수족관에서 돌고래가 유영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

02 고래의 길비뼈 모양의 전시관에는 고래의 내부를 잘 설명해 놓았다.

05 포경이 가능하던 시절 쓰이던 기구부터 해체에 쓰이던 작은 도구들까지 모두 한눈에 볼 수 있다.

등을 갖추고 있다.

울산 대곡리에 있는 반구대암각화가 박물관 2층에 재현되어

있는데, 7,000년 전 벽화 속에 고래가 60여 종이나 등장한 것도 놀랍지만 범고래, 귀신고래, 참고래 등이 매우 섬세하게 묘사된 것이 마냥 신기하다. 작살을 맞은 고래나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고래의 모습을 통해 고래의 생태적인 습성이나 사냥 방법까지 짐작할 수 있다.

이어서 포경역사관에서 흑백 사진 너머로 포경산업의 횡금기를 가늠해보고, 3층으로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귀신고래 실물 모형이 시야를 압도한다. 본래 이름이 쇠고래이지만, 암초가 많은 곳에 귀신 같아 출몰한다 하여 '귀신고래'라는 이름이 붙었다. 겨울에 한반도와 일본 앞바다에서 번식하고 여름에 오후츠크해 북단으로 이동하는데, 요사이 한국계 귀신고래가 멸종위기에 처했다니 아쉬운 마음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래박물관 건너편으로는 고래고깃집이 즐비하다. 포경은 금지되었지만 그물에 잘못 걸려든 고래는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래고기를 각 부위별로 얇게 썰어 주는데, 붉은 살점은 쇠고기와, 지방층인 흰 살은 참치와 비슷하다. 특유의 비릿한 냄새 때문에 선뜻 내키진 않지만, 접시 위의 고래고기를 보고 있자니 새삼 고래가 '바다 속 포유류'라는 사실이 실감난다. ⑩



02

05

# 사람도, 누렁이도, 나비도, 같은 꿈을 꾼다

동물보호시민단체

## KARA 대표 임순례

비람이 차던 초겨울 저녁, 동물보호 기금 마련을 위한 '아름다운 숨' 전시를 보기 위해 인사갤러리로 향했다. 안성기, 김완선, 이현우 등 연예인과 유명 작가들이 기증한 작품들에선 하나같이 세상과 생명에 대한 따뜻함이 베어 나오고 있었다. 세 개의 층을 누비며 감상 을 끝내고 색색의 새해 달력과 노트를 판매하는 갤러리 입구로 돌아 왔다. 어여쁜 모습에 반해 달력 하나를 사서는 내내 모르는 척 지나 쳤던 이에게 대뜸 내밀며 사인을 부탁했다. 갤러리 한쪽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던 틸털한 인상의 그녀. 전시를 주최한 (사)동물보호시 민단체 KARA(이하 'KARA') 임순례 대표와의 첫 만남이었다.

글 이경수  
사진 류병문

## 동물을 사랑하기에 그것을 실천할 뿐

임순례. 영화를 떠 좋아해서 오래 전부터 익숙한 이름이다. 대중에게는 흥행작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하 '우생순')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초기 단편이나 <세 친구>, <와이키키 브라더스> 등도 즐겁게 보았던 골수팬이라 더욱 궁금했다. 충무로에서 잘 나가는 영화감독인 그녀가 갑자기 동물보호단체의 대표가 된 사연. 갤러리에서 수줍게 사인을 받은 3일 후, KARA 사무실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임순례 대표를 다시 만났다. 워낙에 그 사연을 궁금히 여기는 이가 많았는지 그녀는 담담히 KARA와의 첫 인연을 털어 놓았다.

"2004년 즈음 기르던 백구를 잃어버려 찾던 중에 KARA의 전신인 '아름풀'을 알게 되고 명예이사로 활동을 해왔어요. 그리곤 2007년에 대표 제의를 받았죠.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며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은 터라 당시 준비 중이던 <우생순>을 핑계로 '2년 후라면 해보겠다'고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

데 정말 2009년에 다시 대표 제의를 해오더라고요. 그때는 거절할 수가 없었죠." 물론 그녀가 KARA의 대표직을 수락한 것이 비단 2년이라는 시간 약속 때문만은 아니었다. <우생순>의 흥행 이후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데다 2008년 환 경재단의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에 선정되며 사회적 책임감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게다가 그 즈음 그녀는 티베트에서 들었던 "아무리 좋은 걸 깨달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달라이 라마의 설법에 크게 감명을 받은 터였다. 듣다 보니 이런 게 운명인가 싶다. 모든 일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당시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단단히 각오를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할 일이 많아요. 지금이야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처음 대표직을 수락했을 때는 상근 직원 한 명과 반 상근 직원 한 명, 그렇게 셋이서 단체를 꾸려 나갔죠.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온전히 쏟아 부으면 되겠 거니 했는데 일주일 전부를 바쳐도 할 일이 남아요.



자연에서  
만나다

**“학대는 무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동물 학대의**  
**대부분은 동물이 우리와 똑같은 생명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이 절실해요.”**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저도, 직원들도 버틸 수 있는 거죠.”

KARA는 온전히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이다. 회원들이 다달이 만 원, 이만 원씩 보내주는 후원금으로 직원 급여를 비롯해 동물구조 활동, 보호시설 지원 등의 비용을 모두 충당해야 하니 재정적으로 빠듯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동물보호단체들이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넓은 공간도 필요하고, 유지비나 인력도 보호소로 집중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보호소가 없는 대신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보호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반려동물에 대한 의식 개선 활동에 힘쓰고 있어요. ‘개 식용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동물보호 명예감시관을 육성해 일반인들이 학대받는 동물 구조에 적극적으로 대



처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이번 전시회처럼 예술과 동물보호를 접목시켜 더 많은 분들께 알리기도 하고요.”

**지구는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는 공간**  
 교육에 대한 그녀의 의지는 ‘동물보호교육센터’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되어, KARA는 2014년 센터 건립을 목표로 더욱 부지런히 달리는 중이다.  
 “학대는 무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동물 학대의 대부분은 동물이 우리와 똑같은 생명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급속한 산업화 속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 아래서 자랐으니까요. 과도한 육식이나 모피 선호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그 잔혹한 과정을 모르기에 스스로 바꿀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이 절실해요.”

버려지고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할 때마다 법과 윤리, 생명과 양심에 대한 딜레마로 고민한다는 임순례 대표는, 대부분의 비극이 무지로 인한 일이라 믿기에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노라며 미소지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간에 대한 애정과 다르지 않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인간이기에 더욱 고운 기억은 있다.

“지난 초복에 서울역에서 개 식용 반대 캠페인을 벌이다 노숙자가 기르던 강아지 한 마리를 구조했어요. 구타 때문인지 경추가 부러져 짐통 같은 천막 안에 방치되어 있었죠. 빈혈과 영양실조가 심해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였고요. 다행히 병원에서 잘 돌봐주셔서 뒷발도 들지 못했던 아이가 3주 후 걸었다는 소식에 다들 뛸 듯이 기뻤죠.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무지개다리를 건너갔어요. 귀하게 구했던 생명이라 아직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복날에 구조했으니 새로운 복을 받으라고 지어준 그 강아지의 이름은 ‘새복이’였다.

“곱게 키워달라고 보낸 아이들이 함부로 방치되는 것을 볼 때도 속이 많이 상해요. 지금 저와 함께 지내는 ‘겨울이’도 그런 경우죠.

입양을 결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책임감입니다. 모든 것을 각오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 때 한 가족으로서 입양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더 나눌 겸 자리를 옮겨 KARA 사무실로 향했다. 생각보다 협소한 공간에 직원 서너 명과 막 산책을 마치고 온 강아지들이 용기종기 모여 제법 따스한 풍경이다. 얼마 전 다친 흥이의 발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임순례 대표가 직접 약을 챙겨 빌라준다. 의젓한 고양이 고순이와 그 새끼인 꽃돌이, 꽃순이가 책장 위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홍이와 레오, 봉순이, 고순이 식구까지, 모두 입양을 기다리고 있어요. 순하고 착한 아이들이니 홈페이지에서 보시고 입양 좀 부탁한다고 꼭 써주세요!”

직원 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다 문득 KARA 홈페이지([www.ekara.org](http://www.ekara.org))에서 보았던 미국 여성운동가 앤리스 워커의 말이 떠올랐다. ‘이 세상의 동물은 그들 나름대로 존재의 이유가 있다. 흑인이 백인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닌 것처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들도 인간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가 이 땅의 주인이라 는 자의식에 사로잡혀 소중한 친구들을 외면하며 사는 게 아닐까.



# 감자 & 고구마

출출한 겨울밤의

## 친구들

겨울 간식의 스테디셀러 감자와 고구마. 싸고 푸짐하고 영양가에 맛까지 있는 이 믿음직한 콤비가 있어 우리의 겨울은 항상 넉넉하다. 그냥 실한 녀석으로 골라 푹 쪄서 먹어도 맛있지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

요리&amp;스타일링 박용일(Stylish yong)

어시스트 남경현

사진 류병문 진행 허은경

## 부드럽고 든든한 식사 대용 감자치즈수프

## 준비하기

감자 2개, 생크림 2컵, 우유 1컵, 버터 1큰술, 설탕, 소금, 통후추 약간씩, 양파 1개, 모짜렐라 치즈 4큰술, 체다치즈 4큰술, 파슬리가루 적당량

## 만들기

- 감자는 깨끗이 씻고 찜통에 김이 오를 때 넣어 반쯤 익힌 후, 껌질을 벗겨 굽직하게 썬다.
- 양파는 껌질을 벗겨 잘게 다진 후 팬에 버터를 두르고 볶는다.
- ②의 팬에 ①의 감자를 넣은 후 생크림과 우유를 넣어 저어가며 약한 불에서 끓인다.
- ③의 팬에 체다치즈와 모짜렐라치즈를 넣은 후 설탕, 소금, 통후추로 간하여 파슬리 가루를 뿌려낸다.



## 달콤하고 귀여운 간식 고구마크로켓

## 준비하기

고구마 2개, 버터 1큰술, 설탕 1작은술, 계피가루 1/2작은술, 빵가루 적당량, 달걀물 (1개 분량), 밀가루 약간, 식용유 적당량, 소금 약간

## 만들기

- 고구마는 깨끗이 씻고 찜통에 김이 오를 때 넣어 푹 쪄 후, 껌질을 벗겨 으깬다.
- ①의 고구마를 불에 넣어 설탕, 버터, 계피가루, 소금을 넣어 잘 섞는다.
- ②의 재료를 한 입 크기로 동그랗게 모양을 만든 후 밀가루, 달걀물, 빵가루를 묻힌다.
-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 끓으면 ③의 재료를 넣어 빠르게 튀겨낸다.



자연에서  
맛보다

감자와  
고구마를  
먹는 새로운  
방법



감자와 고구마는 만만하다. 물과 불만 있으면 누구나 맛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인류는 언제나 새로운 맛, 색다른 요리를 추구해오지 않았던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때로는 약간의 수고를 더해 다르게 변신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감자수프는 일단 간편하다. 감자와 양파, 우유만 있어도 어지간히 맛이 난다. 이 보들보들하고 고소한 수프는 감자만 먹었을 때의 퍽퍽함을 잊게 해주며 감자도 든든한 아침식사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원래 감자는 신경성 위염이나 위궤양,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훌륭한 식재료로, 특히 수프로 먹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감자의 비타민 B군과 C군, 칼륨 덕분인데 이는 모두 수용성으로 그냥 삶아서 먹을 경우 물에 녹아버린다. 그렇기에 수프는 이 유효성분을 모두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또 감자는 쌀밥보다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 밥 대신 먹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최적이기도 하다.

고구마크로켓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다. 공장에서 찍어낸 간식이 아닌 착한 간식을 고민 중이라면 동글동글 귀엽고 달콤한 크로켓이 제격이다. 고구마를 고르는 방법은 겉으로 보아 병충해 흡집이 없고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한 것, 색이 선명한 적자색을 고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동그란 모양은 밤과 비슷한 맛을 내고, 길쭉한 것은 달며 섬유질이 많다. 신기하게도 바로 캐낸 것보다 한 달 가량 저장된 것이 더욱 맛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라.

고구마가 퍽퍽해 싫어하는 사람은 고구마라떼를 추천한다. 삶은 고구마를 체에 내리거나 포크로 으깬 뒤 따뜻한 우유와 섞어 꿀을 넣으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고구마라떼가 완성된다.

## 타이어 드림 패밀리의

타이어테크 근화점

Happy New Year!

글 이경수  
사진 류병문



가족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하지만 뜻과 마음이 맞으면 가족만큼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 파트너도 없는 법. 가족의 에너지 덕분일까? 춘천시 근화동에 위치한 타이어테크 근화점은 손발이 착착 맞는 패밀리의 조합으로 입구에만 들어서도 훈훈함이 넘친다. 오랫동안 운수업을 하던 배원주 대표가 지인을 통해 타이어 전문점을 오픈한 것이 2007년 7월. 그사이 여려 사업에서 부침을 겪은 후라 절실했던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다.

운수업을 하며 자동차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타이어는 처음이라 모든 것이 녹록치 않던 그때, 옆에서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돋겠다고 나선 것은 아내였다. 일을 하며 종일 불어 지내니 작은 투닥거림도 있지만, 꼼꼼하게 행정적인 업무를 맡아준 덕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다. 2년 전부터는 대학을 졸업한 아들까지 대리점에 험류하면서 이보다 더 든든할 수 없다. 여기에 오래 함께 한 직원과 키우는 강아지 두 마리까지, 모두 합치면 제법 대식구인 드림팀이다.

“어디 우리뿐인가요. 처음부터 늘 저희를 도와준 넥센타이어와 꾸준히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손님들까지 모두 한 식구라고 생각하니 지치고 피곤할 일이 없습니다.”

편안한 친구처럼, 대정한 이웃처럼, 허물없는 가족처럼. 배원주 대표의 경영 철학은 명확하고도 인간미가 넘친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니 실수가 없어 단골도 계속 들어나는 추세다. 무얼 더 바랄까 싶지만 항상 진화된 서비스를 생각하는 배 대표는 아직도 배가 고프단다.

“내년엔 넥센타이어 도매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좋은 품질의 타이어를 더 싸게 손님들께 선물할 수 있으니까요. 춘천의 자동차들이 모두 우리 넥센타이어를 달고 쟁쟁 달릴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참, 정도 많고 욕심도 많은 가족이다. 덕분에 2012년 춘천 시민들은 타이어 복 넘치는 한 해를 보내게 될 것 같다. ⑪

# 불량률 제로를 향한

이해와 소통으로 하나 된 청도 생산1부

## 무한 도전!

중국 청도는 5개 시 7개 구로 구성된 인구 700만의 도시로 최근 한국 기업의 투자가 눈에 띠는 지역이다. 넥센타이어 역시 중국 청도 래서시의 100만 m<sup>2</sup> 대지에 공장을 지어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안정화에 들어간 넥센타이어 청도공장은 꾸준한 TPM과 품질관리로 이제는 불량률 감소를 향해 무한도전에 나섰다. 열정과 끈기가 넘치는 청도공장의 그들, 생산1부의 파란만장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자.





### 큰 바다에 돌멩이를 던자

생산1부는 정련, 압출, 재료의 3개 과로 이루어져 있다. 재료과 내에는 압연, 준비, 비드공정이 있으니 총 5개 공정으로 구성된 셈. 여기에 정련과, 압출과의 설비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비보전1과를 투입, 총 4개과로 구성되었다. 염문군 부장을 포함 총 274명의 생산1부. 주재원인 김경남 부장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 현지 인력으로 넥센타이어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느끼고 자신의 열정을 시험하기 위해 들어온 인재들이다.

타이어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초창기 대부분의 직원들은 공정에 대해 문외한이었다. 타이어는 물론, 설비에 관한 지식도 전무했다. 교육을 위해 꾸준히 주재원을 파견했지만 언어 차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간격은 쉽게 줄어들지 않았다.

“중국인은 전반적으로 화를 잘 낼 줄 모릅니다. 저희가 화를 내고 다그쳐도 큰 바다에 돌멩이 하나 던진 기분이죠. 불만이 없으니 개선도 없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사가 지시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이어지질 않았고요. 그런데 이건 그저 문화적 습성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옳다 그르다고 헛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재원들은 일단 소통에 주력했다. 동료들에게 가족의식을 느낀다면, 회사에도 주인의식이 생길 것이라 생각했다.

휴일에는 다 같이 야외로 등산을 가기도 하고, 사내에서 축구나 족구, 농구 등을 함께 즐겼다. 짬이 날 때면 휴게실에 모여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정을 쌓았다.

이런 주재원들의 마음이 통한 것인가. 작지만 변화가 보였다. 처음엔 주재원만이 모임을 주도했지만 현지 관리자들이 먼저 주도하는 경우도 생겼다. 동료라는 개념이 쌓이고, 가족이라는 인식이 생기자 다들 업무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 동료들과 함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성취감을 느끼고 모르는 분야나 알고 싶은 분야에 대해 교육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사적인 교육 외에 부서마다, 과마다 각자 교육을 추가해서 진행하는 일도 생겼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생산성이 점차 향상되었다. 초기 안정화에 성공한 것이다.

### 드디어 TPM을 시작하다

생산성이 향상되자 이제는 품질에도 욕심이 났다. 그래서 양산 공장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던 TPM을 도입했다. 하지만 청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 정리정돈이 되어야 작업 효율이 높아지는데, 이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으니 0 Step을 넘기는 일부부터 고비였다. 주재원들이 안타까움에 벌만동동 구르고 있을 무렵, 글로벌생산지원팀이 생겼다. TPM에 관련된 구체적인 교육과 필요로 하는 인력, 설비 등을 파악해 적재적소에 지원하기 시작하니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지저분한 현장 벽면에 페인트로 벽화를 그리고, 가족사진을 이용해 휴게실을 꾸미고, 현황판도 예쁘게 정리하는 등 TPM 활동에 속도가 붙었다.

현장작업자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주재원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설비를 연구하거나 현장을 깨끗이 정리하는 모습도 보

이기 시작했다. TPM이 공장 전원이 참여하는 생산 혁신 활동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이다.

생산1부에서는 정련공정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띠었다. 일반적으로 정련은 원재료를 가공하느라 현장이 가장 지저분한 편. 하지만 청도공장의 정련공정은 타 공정보다 훨씬 청결하다. 이는 아래수 전무의 남다른 생각 때문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정이 안정화되어야 다음 공정도 잘 굴러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련공정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TPM을 도입하여 깨끗한 작업장으로 단장한 것은 물론, 설비도 꾸준히 점검하여 최상 품질의 고무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도공장의 TPM은 0 Step이라는 고개를 넘어 1 Step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 이제는 품질이다

아직도 생산1부는 하고 싶은 것이 많다. 이미 생산량은 초기 목표에 근접했고 굵직한 시스템도 완비되었으나, 품질이 아직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Made in China라는 오명 아닌 오명을 벗고 싶다. 이제 생산1부는 더 나은 품질의 타이어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최근에는 글로벌생산지원팀과 협력하여 현장 작업자들이 공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설비 전반에 대한 추가교육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양산공장으로의 연수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양산공장에서 본 넥센타이어는 완벽한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의 작업태도나, 작업에 임하는 자세 등 청도공장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습관적인 행동

주재원들의 마음이 통한 것인가. 변화가 보였다.

서로에게 동료, 가족이라는 인식이 생기자 다들 업무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

함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며 성취감을 느끼고, 모르거나 알고 싶은 분야에 대해

교육을 요청하기도 했다.

점차 생산성도 향상되었다. 초기 안정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최근엔 이를 고치기 위해 직원 간 단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의 협조도 물론 중요하겠죠. 우리가 솔선수범할수록 생산1부 전체가 발전할 거라는 생각으로 쉬지 않고 달리는 중입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고작해야 망망대해에 돌멩이를 하나 던진 것뿐이니. 하지만 생산1부 구성원 모두는 작은 노력의 물결이 뭉쳐서 큰 파도가 될 날이 올 것을 믿는다. 글로벌 기업 넥센타이어의 최고 생산기지로 거듭나기 위한 그들의 열정은 지금도 무한히 진화하고 있다.❷



# 2011년 어느 겨울날

OE기술팀 김무열 차장 가족과 함께

## 서대문에서 행복하다

OE기술팀 김무열 차장은 12년 전 아내 김유진 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다. 매해 가족사진을 찍어 행복한 순간을 기록하겠노라고. 그 약속은 결혼 3년 후까지 지켜졌지만 이내 생활에 밀려 드문드문 이가 빠지고 말았다. 2011년 겨울 어느 토요일 오후, 김무열 차장은 약속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 꽉 막힌 정체를 뚫고 서대문 스튜디오에 도착했다. 이제는 둘이 아닌 말썽꾸러기 형제와 더불어.

글 허은경  
사진 이맹호

기록하세요



### 서로 사랑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자

김무열 차장 가족은 '행복'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다. 잘 갖추어 놓은 넉넉함도,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함도 행복이겠지만 가족이 함께 보내는 평범한 순간 역시 같은 무게의 행복이라는 것을. 이 단순한 진리를 좀 더 쉽게 얻었으면 좋았으면만 몇 년 전 아내 김유진 씨가 크게 아프면서 힘겹게 배웠다.

"3년 전 이맘때쯤 아내가 유방암 2기라는 걸 알았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죠.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라, 규현이 규범이 키우라, 집안일까지. 저는 항상 회사 일로 바빠서 아내를 돌볼 생각은 못했어요. 혼자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그 일이 제 인생과 우리 가족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됐어요. 물론 지금도 바쁘지만 되도록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누리며 살려고 하죠."

다행히 가족은 힘겨운 항암치료를 잘 이겨냈다. 앞으로 3년은 더 지켜봐야 완치라고 할 수 있지만 2년째 별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고 있다. 누구보다 가장 힘들었을 아내 김유진 씨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이 일을 통해 가훈처럼 감사하고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다짐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 2011 어느 겨울날의 일기

이날 사진을 찍으며 가장 많이 한 말은 "조심조심~"과 "침착하게~". 일반적으로 "스마일" 혹은 "김치", "웃으세요"로 분위기를 띠우느라 애를 쓰는데 이날은 천진난만 규현이와 규범이의 장난기 덕분에 큰 웃음이 빵빵 터졌다. 특히 침대에서 뛰는 것에서는 다칠까 걱정될 정도로 어찌나 신나게 노는지 김무열 차장의 센스 있는 '닌텐도 이용권'과 '컴퓨터 10분 사용' 쿠폰발행이 없었다면 큰일 날뻔했다.

"남편이 아이들과 친구처럼 놀아요. 야구도 하고 브루미블도 하고 산책도 하고. 책임감으로 놀아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재밌어하니 그것도 행복이죠."

아내 김유진 씨는 신나게 뛰노는 아이들을 보며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스스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자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김무열 차장은 가족사진 약속은 소홀했지만 2001년부터 써온 가족일기는 놓치지 않고 있다. 아내나 아이들, 자신에게 특별한 일이 있는 날이면 꿈꼼하게 그 순간을 기록해 놓는다. 아내의 수술 날 풍경도, 규현이가 태어난 날도, 규범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도 그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을 것이다. 김무열 차장은 아이들이 장차 새로운 가족을 꾸리는 날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주려 마음먹고 있다.

사진을 찍던 날은 막내 둘 사진 이후 무려 10여 년 만의 스튜디오 외출이었다는데 과연 이날은 2011년 초겨울 어느 날의 기록으로 일기장 속 한 페이지가 되었을까? Ⓜ

고마워요

# 시간과 공간의 틈으로 산책을 나서다

김효중, 김혜정 사우와 함께 걸은 고성 상족암길

글 허은경  
사진 류병문, 고성공룡박물관

'공룡'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것은 무엇인가? 감히 추측하건데 대부분은 영화 <쥬라기 공원>을 떠올리거나 아기공룡 둘리,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름 정도를 생각해내지 않을까? 이날 함께한 김효중, 김혜정 사우도 고성 상족암(床足岩)길을 걷기 전까지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눈앞에서 선명하게 찍힌 공룡의 발자국을 확인하고 나서는 어느새 이득한 시간과 공간의 틈으로 푹 빠져들게 되었다.



공룡박물관 앞뒤 뜰에는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커다란 공룡 모형들이 가득하다.

## 다도해 옆 천연 자연사 공원

상족암길의 시작점은 고성공룡박물관이다. 2004년에 문을 연 이 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공룡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대표 지역인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에 세워졌다. 이번 겨울여행에 참여한 제품디자인팀 김효중 사우와 제품개발팀 김혜정 사우는 볼거리 많은 박물관을 뒤로하고 우선 밖으로 나갔다. 뒤틀 전망대 방향에 상족암으로 가는 길이 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상족암을 거쳐 공룡발자국 화석단지를 보고 입암마을 까지 갔다가 길을 되짚어 박물관으로 돌아오기로 했다. 상족암길은 고성을 대표하는 아주 특별한 길이다. 에메랄드빛 자란만에는 보석같이 예쁜 섬들이 떠있고 해안선에는 책을 켜켜이 겹쳐 놓은 듯, 시루떡을 쌓아놓은 듯한 해식애 절벽이 장관을 이룬다. 게다가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파식대는 그 기묘한 형태도 물론이거니와 수백 개의 중생대 백악기의 공룡 발자국이 남아 있어 볼거리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바다와 공룡, 산과 들을 모두 만나는 이 아름다운 길은 천연기념물 제411호로 지정되어 있다.

신입사원 교육에서 같은 조가 되어 친해진 김효중 사우와 김혜정 사우의 발걸음이 마냥 가볍다. 사회인으로 보낸 첫해가 꽤나 긴장되었던지 아주 오랜만에 소풍을 나온 느낌이란다. 역시 이야기를 나누며 산책하는 것은 친해지는 지름길인지 잠시 걷는 사이 두 사람이 동기를 사이에 '신념왕'과 '딸기'라는 별명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았다. 교육과정 중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김효중 사우의 발표가 어찌나 강렬했는지 이후 동기들이 그를 '신념왕'이라 칭했다. '딸기'는 김혜정 사우가 딸기모양 캐릭터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다. 초겨울의 싸늘한 날씨에 비마저 잠시 뿐된 날이었지만 씩씩하고 명랑한 두 사람 덕분에 상족암길은 훈훈했다.



## 65만 년 전 호수가 있던 자리

처음에는 공룡 발자국과 해식애 암벽이라는 말에 지레 무언가 배워가야 할 것만 같은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 그러나 나무데크를 따라 걷는 해안길은 딱딱한 이름과는 달리 매우 아름다웠다. 제주도의 주상절리나 부안 변산반도의 채석강 못지않은 풍광이 내내 감탄을 자아낼 정도다. 특히 상족암길이라는 이름의 유래와 관련 깊은 해식동굴은 신비감마저 스며있다.

박물관에서 해안으로 내려서서 상족암 방향인 왼쪽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해식동굴을 둘러보고 가기로 했다. 물이 빠졌을 때 만 모습을 보여주는 이 동굴은 기둥의 모양이 거대한 밥상다리 같기도 하고, 여러 개의 다리 같다고 하여 상족(床足) 혹은 쌍족(雙足)이라 불린다.

김혜정 사우가 빛을 등지고 멋진 실루엣 사진을 찍는 사이 김효중 사우는 동굴 내에서 촛농자국을 발견하곤 신기해했다. 억겁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 놓은 충암단애 지형이 무속인의 눈에 영험하게 느껴졌는가 보다.

동굴을 나와 본격적으로 걷는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멈춰 서야 했다. 친절한 안내판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내내 기다렸던 공룡 발자국. 약 지름 30cm의 타원형 흠이 바위 곳곳에 줄



지어 찍혀있다. 신비하기 그지없다. 초식을 하며 무리를 지어 생활했을 거라는 이 공룡 무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었던 걸까. 중생대는 이 지역이 일본 대륙과 나누어지지 않았던 시기로 바다가 아닌 호수가 있던 늦지대란다. 물가를 오가던 공룡의 발자국 위로 퇴적층이 쌓였고 그대로 굳어갔다. 그 후 지각변동으로 지층이 솟아오르고 파도에 퇴적층이 쓸려 나가면서 1982년 소풍을 나온 대학교수의 눈에 띠어 그 존재가 드러났다.

김효중 사우는 공룡의 발자국도 신기하지만 오랜 시간 쌓이고 압축되고 깎여나간 해안단층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디자인을 전공한 그의 눈에는 자연이 빚어낸 오묘하고도 거대한 패턴이 색다른 자극이 되었으려나. 입암마을까지 걷는 길은 그렇게 시간과 공간의 틈에서 보고 생각할 것들로 가득했다.

## 내일은 또 누구의 길이 되려나

길을 되짚어 고성공룡박물관으로 돌아왔다. 1층부터 3층까지 공룡으로 가득한 곳. 박물관은 진품 화석은 물론 공룡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져 아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이 많이 찾는다.

놀라운 것 같아 기쁘다던 두 사람은 어느새 눈을 반짝이며 학습모드로 변신했다. 김혜정 사우는 이공계여서인지 공룡에 관심이 많은 듯했다. 모교 교수가 발견한 공룡에 '부경'이라는 학교 이름이 붙었다는 설명도 그에게 들었다. 박물관을 두루 돌아 본 김혜정 사우가 공룡이 그려진 손수건 두장을 구입했다. 김효중 사우는 열심히 둘러보더니 고민만 하다 포기해버렸다. 대신 기대 없이 웃는데 다시 한 번 오고 싶을 만큼 아름답다며 다음을 기약했다.

공룡에서 시작해 공룡으로 마무리한 여행길. 어느덧 중생대의 흔적을 찾던 일행은 46억 살 지구와 그 곳에서 탄생과 소멸을 반복한 생명의 역사까지 더듬게 된다. 46억 년이라는 지구의 나이를 1년으로 환산했을 때 1월 1일 0시 정각에 지구가 탄생했다면 2월 27일경에 생명이 처음 출현했으며, 인류가 지구에 살기 시작한 것은 12월 31일 2시경이다. 그리고 서기 2,000년

공룡에서 시작해 공룡으로 마무리한

여행길.

어느덧 중생대의 흔적을 찾던 일행은

46억 살 지구와 그 곳에서 탄생과

소멸을 반복한 생명의 역사까지

더듬게 된다.

이란 세월은 1년 중 마지막 4초에 불과하다. 공룡은 11월 15일에 태어나 15일간 이 땅을 차지하다가 사라졌으니 그에 비하면 인류는 이제 겨우 먼지만한 존재감을 가졌을 뿐이다. 눈부시게 화려한 문명이 피어나고 또 그로인해 고통 받는 20세기는 고작 0.7초에 조금 못 미치는 시간임을 깨닫는다. 상족암길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해 걷다 깨어나면 겸손해지는 그런 길이다.❷

## 고성 상족암길

해식동굴 | 상족암 | 공룡발자국 화석 | 입암마을입구 | 고성공룡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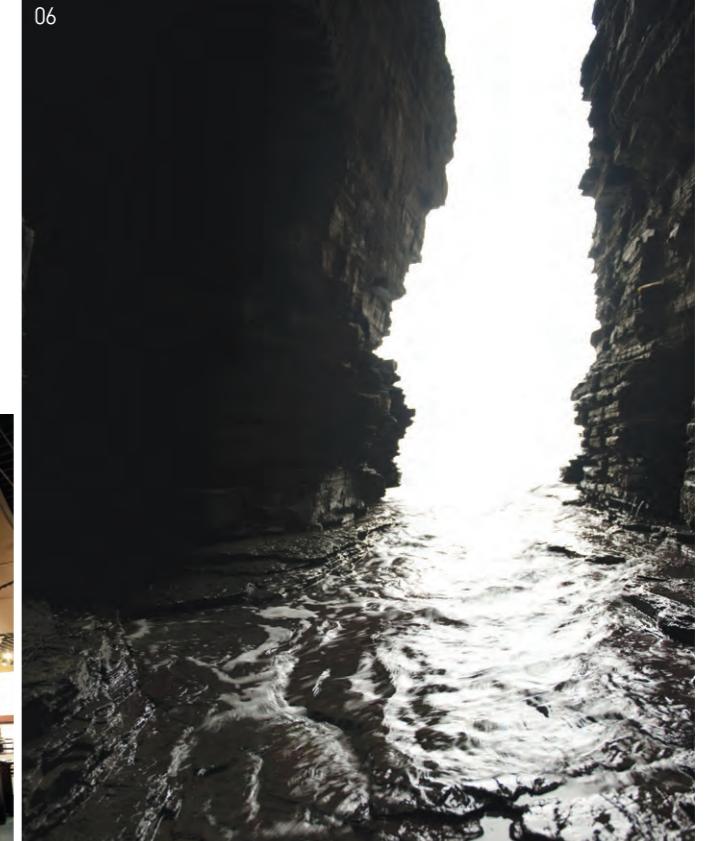
01 상족암길에 관한 설명을 꼼꼼히  
읽어보는 김효중 사우

02 두 사람의 뒤쪽으로 상족암길과  
나무데크가 보인다.

03 어딘가로 향하던 공룡들의 발자  
국이 아직도 선명하다.

04, 05 아이들처럼 신나 둘러본 고성  
공룡박물관

06 해식동굴 안에서 바라본 자란만



# ‘함께’라는 마법으로 다이루어져라!

김상준 대표, 박정석 사우와 함께

인연이라는 건 가끔 사람의 힘을 벗어난 신비로운 마법 같다. 그때 그 곳에 가지 않았다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랜 세월 물방울로 바위를 뚫어야 겨우 옛길 스칠 인연을 만난다고도 하니, 지금 내 곁에 선 이와 보통 운명은 아니구나 싶다. 알고 지난 지 이제 꼭 1년을 채운 SD웹솔루션 김상준 대표와 일산지점 박정석 사우 역시 마법 같은 인연의 귀함을 알기에 서로가 더욱 각별하다.

글 이경수  
사진 류병문

## 신기하게도 닮은 두 남자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볼수록 더 헷갈린다. “두 분 꼭...” 조심스럽게 말머리만 꺼냈는데 “친형제 같다고요?” 금세 웃는 얼굴로 이구동성. 동그랗게 접히는 선 한 눈매가 닮았다고 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덧붙인다.

“은행에 같이 가서 신분증을 내놓으면 창구 직원도 바로 앞에 있는 우리를 구분 못하더라고요. 우린 잘 모르겠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닮았다고 하네요.”

나란히 앉아서 서로를 보고 키득대는 모습이 사이좋은 동기지간 같다. 이제 서로를 안 지일년 남짓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건 2010년 9월 일산지점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다. SD웹솔루션을 운영하던 김상준 대표는 네센타이어와의 거래를 결심하고 일산지점에 먼저 전화를 걸었다. 2008년 입사해 영업직의 쓴맛, 단맛을 보고 있던 박정석 사우의 고객이 된 것이다.

“제가 11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잘 챙겨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 늘 마음에 걸리죠. 그래도 지금껏 아무 불평 없이 믿고 함께 해주시니 더욱 고마운 마음입니다.”

박정석 사우의 말에 김상준 대표가 짐짓 서운했던 체를 하며 그를 놀린다. 역시 나 허물없는 형제들 같다.

“소홀히 대했다고 느꼈으면 지금껏 함께할 수 없었겠죠.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 줬기에 저는 이 사람을 믿는 겁니다. 특유의 밝고 쾌활한 에너지도 참 좋았고요.”

김상준 대표의 칭찬에 박정석 사우는 손사래를 친다. 오히려 그를 만난 덕분에 자기 직업의 비전을 새로이 깨달았다는 것이다. 돌아켜보면 인생의 한 분기 점이 되어준 인연이다.

“영업일을 하다 보면 회사의 이익과 고객의 기대 사이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시기에 김 대표님을 만났는데, 시너지 효과, 윈-윈 효과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이 분이 유일했어요. 서로 도우며 상승에너지를 만들자고 하시는데, 그게 영업사원인 제가 진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시너지로 이룬 동반성장의 마법

김상준 대표는 박정석 사우의 밝은 천성과 친화력을 칭찬하고, 박정석 사우는 김상준 대표의 진중함과 성실함을 배우고자 노력한다. 그야말로 최고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조합이다. 그럼에도 궁금해서 물었다. 유독 넥센의 박정석 사우를 아끼는 이유.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매력이 아닐까요? 일종의 마법처럼, 서로의 훌륭한 점을 보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면일 수도 있고, 업무적인 면일 수도 있죠. 물론 박정석 사우는 그 두 가지 모두 훌륭하고요.”

칭찬 일색의 말들에 일견 반듯하고 심심한 관계가 아닐까 했지만 퇴근길에 불러내어 소주잔을 기울이는 친근함, 다음 날 아침 등산 약속을 해놓고 평크를 내버리는 대담함까지 갖춘, 제법 재미있는 사이다.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가능한 서로 자주 만나려고 해요. 김 대표님이 정말 부지런 하셔서 트렌드 연구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옆에만 있어도 저로서는 배우는 게 많죠. 일종의 멘토랄까요?”

그러한 시너지 덕분인지 두 사람은 지난 1년 동안 1,000%에 달하는 매출 성장률을 보이며 마법 같은 윈-윈 효과를 몸소 실현해 보이는 중. 그렇다면 멘토 김상준 대표에게 박정석 사우는 어떠한 존재일까?

“음... 스마일, 브라이트... 이런 말들은 흔하니까... 조금 간지럽지만, 샤이니?”

번쩍이는 모자를 쓴 채로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리는 마법사 형제의 모습이 눈부시다. 앞으로도 이들 멘토와 멘티, 형님과 아우, 점주와 담당직원의 앞날에 블링블링한 마법이 가득할 것만 같다. Ⓜ

# SHINY



일산지점  
박정석 사우

SD웹솔루션  
김상준 대표

# 포 팀장과 그 수하들의 생산기술팀 단합대회를 다녀와서 신불산 단풍 유람기

어디가 좋을까? '전원 참여'라는 팀장님의 엄명 아래 단합대회 운영을 맡은 전재민, 옥호 사우는 고민에 빠졌다. 나날이 시름만 깊어져가는 두 사우를 보다 못해 캠핑 마니아인 내가 나섰다. 위치도, 장소도 극비. 오직 버스 승차 위치만 문자로 전송했다. 편안한 트레이닝복에 운동화 차림으로 버스에 몸을 실은 팀원들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내내 아우성이었다.

글·사진 이영진 생산기술팀 대리



굽이굽이 산골짜기를 돌아 1시간 30여 분만에 도착한 곳은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신불산 입구. 설마 등산을 하냐며 수군대는데,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적이 없다. 선두는 양산시 최고의 등산꾼 김용훈, 김현호 사우가 나섰고, 조제현, 이태길, 안진호 '파트장 삼총사'가 듬직하게 후미를 맡았다. 몇몇 사우들이 배탈을 평계로 빠져보려 하지만 어림없다. 치밀한 운영단은 단 한 명의 낙오도 용납하지 않았다.

선선한 산바람이 불어오자 힘들다는 투덜거림 사이로 감탄의 목소리가 섞인다. 아직 단풍은 절정에 못 미쳤으나 각박한 현실을 잠시 내려놓기엔 충분히 아름다웠다.

계곡을 따라가다 만난 파래소 폭포. 예부터 가뭄이 심할 때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어김없이 단비가 내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의 '바래소'가 변형된 이름이라고. 옹기종기 모여앉아 사진도 찍고, 시원한 폭포수에 땀 맷힌 손을 담그며 짧은 휴식을 즐겼다.

"다시 출발!" 저 앞에서 선발대가 외친다. 그런데 정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돌아간다.

"모두 함께하기 위해 산행을 택했지만, 억지로 정상을 오르기보다는 같이 즐기고 독려하며 눈높이를 맞추어 걷는 시간이 되

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오늘의 정상입니다." 어쩐지 뭉클한 운영단의 말에 동감하고 안도하는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청량한 폭포음과 함께 스트레스를 멀리 날려버린 우리는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 농원으로 향했다. 솔솔 풍기는 고기 굽는 냄새에 다들 입 속에 침이 고였다. 우리 뜻의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고참 선배 대 신입 후배의 족구시합이 열렸다. 은둔고수들이 총출동한 이날 시합은 40대 고참들이 노의장을 과시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드디어 기다리던 식사시간. 일명 '포 팀장'이라 불리는 안경포 생산기술팀장은 "여러분이 있어 지금의 우리와 넥센이 있다. 내일의 넥센 또한 우리가 이끌 것이며, 언제나 여러분이 함께 할 것"이라고 견배를 제의했다. "넥센타이어 생산기술팀을 위하여!" 뒤따르는 팀원들의 목소리가 우렁찼다.

즐거웠던 단합대회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 어느덧 한 달. 파란 가을 하늘과 은행나무 사이의 통근 길에 서니 그 날이 떠오르며 문득 넥센의 현재와 미래가 실감났다. 순간, 나도 모르게 카메라를 들어 셔터를 눌렀다. 우리를 둘러싼 풍광을 담아 오늘의 추억을 더하기 위하여. Ⓜ

## 여주 토박이 스마일 맨의

타이어테크 여주점

Thank You, 2011!

글 이경수  
사진 류병문

# 스마트폰으로 똑똑하게 사진 찍기

글·사진 윤돌 여행·사진작가  
<사진 잘 찍는 책> 저자



빈티지 느낌의 사진을  
친구들과 함께  
**인스타그램**

아이폰



필터 선택 화면 ▶ 비네팅 효과 선택 화면



인스타그램 초기 화면 ▶ 인스타그램 인기사진 공유 화면



인스타그램으로 촬영한 화면

## 빈티지 사진 속 추억 만들기

인스타그램은 세계적으로 7,000만 명의 사용자들이 사랑하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아이폰에서 간단한 조작만으로 멋진 사진을 촬영하고 공유할 수 있다. 놀라울 만큼 많은 기능을 가진 인스타그램으로 다양한 효과를 즐기고 주변의 친구나 가족과 사진을 공유해 보자.

## Tip 나만의 스마트한 파노라마 사진 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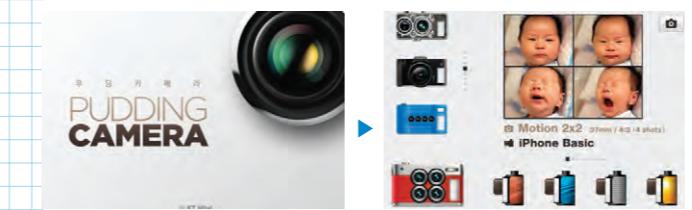
Photaf 3D Panorama  
안드로이드



카메라 사양이나 화소를 넘어 3D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수 있다. Photaf은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360도 파노라마 사진을 연출한다. 수동 촬영은 물론, GPS를 활성화시키고 전천히 카메라를 움직이면 자동 모드로도 파노라마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촬영한 사진은 공유해 자랑할 수 있고, www.photaf.com에서도 전 세계 사용자들이 올린 파노라마 사진을 감상할 수 있다.

**무한한 사진 공유의 장 속으로**  
처음 인스타그램을 실행하면 간단한 화원가입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가입을 완료하면 사진 피드 공간이 만들어져 내가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내가 피드한 사진이나 공유한 댓글 등을 보려면 인스타그램 메인 화면 아래쪽의 '사진 피드'를 터치하고, 인기 사진이나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보려면 '인기 사진'을 선택한다.

스마트폰이 대세인 요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잘만 이용하면 실제 DSLR 카메라나 스냅 카메라 못지않은 촬영을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여러 개의 카메라와 렌즈 효과를 낼 수 있으니 실제 작가들 중에는 모바일 기기만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제 우리도 트렌드에 발맞추어 스마트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명품사진에 도전해 보자.



푸딩카메라 실행 화면 ▶ Motion 2x2 카메라 선택 화면

촬영할 피사체에 명암과 포커스를 맞춘 후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하면 연속해서 네 장의 사진이 촬영된다. 어린 아이의 변화무쌍한 얼굴을 한 번에 담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네 가지 표정을 담으면 재미있는 사진을 연출할 수 있다. 여러 표정이나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진을 한 장에 담아 촬영해보자.

Motion 2x2 기능을 활용해 책의 표지를 다양하게 담아 본 것이다. 움직임이 있는 피사체를 찍으면 더욱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연속 사진을 얻을 수 있다.



Motion 2x2 카메라 촬영 화면 ▶ Motion 2x2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 한 번에 다양한 모습을 연속 촬영하기

푸딩카메라를 실행하면 첫 화면 왼쪽에 다양한 카메라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Motion 2x2 카메라를 선택한다. 이 카메라는 네 장을 연속 촬영해 가로 2장, 세로 2장, 총 4장의 사진을 한 장에 담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한 효과를

## 푸딩 카메라

아이폰 / 안드로이드

푸딩카메라는 여러 가지 카메라와 필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으로 셀프 카메라부터 파노라마 카메라 등 여러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다채로운 색감의 필름을 선택하면 필터나 조명 없이도 컬러감이 두드러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판타지 카메라 선택 화면

판타지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 감성 촉촉한 일상을 담다

푸딩카메라 왼쪽의 카메라 중 판타지(Fantasy) 모드를 선택한 후 셔터 아이콘을 터치하면 의도적으로 한 곳에 초점이 맞춰진 판타스틱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판타지 모드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인물 사진을 손쉽게 연출할 수 있어 특히 여성들이 좋아하는 기능이다.

## Tilt Shift 모드로 미니어처 효과를

사진촬영 모드 중 왼쪽 하단의 Tilt Shift를 선택하면 된다. 획이나 종으로 지역을 설정하면 그 부분을 제외한 곳에 강한 블러와 색을 입혀 비현실적인 미니어처 효과를 내는 방식이다.

특수효과 모드의 Magic Color도 흥미롭다. 사진을 흑백으로 찍어서 원하는 색만 지정해 살려내는데 포토샵의 번거로운 작업 없이 매우 간단하다.



첫 번째 메뉴의 좌측하단  
Tilt Shift 모드 선택하기



횡과 종의 축,  
블러와 색 강도 조절 가능

## 이런 사진 처음이야! Fun 모드

사진을 그림처럼 바꾸는 것은 기본이고 어안효과, 초현실 색상, 열 이미징 등 다양한 이색 효과가 모여 있다. 특히 유령효과는 신선했던 발상이다. 사진을 찍으면 어딘가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노려보는 여자의 흐릿한 잔상을 발견할 수 있다. 특별한 조작 없이 해당 모드로 찍기만 하면 끝이므로 매우 간단하다.



거울 안으로  
귀신의 모습이 보임



## 가시 돋친 아름다움,

안전한 산행을 위한 세 고개

### 겨울산

글 하은경  
참조 코오롱등산학교  
(www.kolonschool.com),  
<등산이 내 몸을 망친다>정덕환 외 저음

겨울이면 어김없는 강원도 지역의 폭설 소식. 그와 동시에 겨울 산행을 즐기는 이들의 눈앞에 겨울산의 모습이 아른거리기 시작한다. 아무도 벌자국을 남기지 않은 순백의 너른 눈밭, 꽃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난 상고대, 그 속에서 마시는 뜨끈한 국물까지. 겨울철 산행은 어느 계절보다 특별하다. 그러나 마냥 달려들었다가는 그 가시에 찔리고 말 것이다. 아름다운 만큼 위험한 겨울 산행법을 알아보자.

근래 유명한 산악인들의 사고 소식이 잇따랐다. 평생을 산과 함께 살아온 이들이지만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무력할 뿐이었다. 일반인이 오르는 산이야 전문가들이 오르는 산에 비하면 천지차이겠지만 그렇다고 우습게 보고 덤볐다가는 큰코 다친다. 겨울 산은 더욱 그렇다. 12월부터는 일조시간이 급격히 짧아지고, 1월은 일년 중 가장 기온이 낮은 시기이며, 2월은 연중 적설량이 가장 많은 기간으로 각종 위험이 도사린다. 실제로 웰빙 문화 확산으로 산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면서 산악 사고는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따라서 가벼운 산책 이상의 산행이라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아름다운 겨울산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한 고개 겨울산을 쉽게 보지 말라

가장 큰 위험은 조난이다. 강풍이나 눈, 눈사태, 안개, 저체온증 등 겨울산에는 다른 계절보다 발이 묶일 가능성이 많다. 보통 해발 100m를 올라갈 때마다 기온은 0.6도씩 낮아지고 여기에 초속 1m의 바람이 불 경우 체감온도는 2도씩 내려간다. 체온을 지나치게 뺏기면 뇌의 작용이 둔화되고 피로감이 심해지며 손, 발, 얼굴, 귀 등에 동상의 위험도 높아진다. 극도의 피로는 동사를 유발할 만큼 위험하다. 강풍은 체감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벼랑에서 균형을 잃게 해 실족의 우려가 있다. 안개는 길을 잊게 하는 주범이다. 시야가 좁아져 능선인줄 알고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계곡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눈사태는 한겨울 산에서 가장 위험한 사고다. 눈이 내리는 도중이나 직후에 발생하는데 시간당 2cm의 눈이 쌓인다면 눈사태의 위험이 있다. 설악산 천불동 계곡이나 공룡능선, 한라산 장구목 등 상습 눈사태 지역이 있으므로 폭설이 온 후에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소형라디오를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기상을 체크하고 변화의 조짐이 보이면 재빨리 하산해야 한다.



### 저체온증 대처법

저체온증은 몸의 온도가 35도 이하로 내려가는 상태를 말한다. 주로 눈을 먹거나 눈밭에 텔썩 주저앉아 오래 강풍을 맞을 때 비롯되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므로 매우 위험하다. 체온이 35도가 되면 피부와 치아가 떨리고, 33도 이하가 되면 균형 잡기가 힘들며 발을이 부정확해진다. 30도 이하에서는 피부가 파랗게 변하고 25도까지 가면 심장이 멈춘다. 체온이 떨어진 후에는 다시 회복이 어려우므로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체온을 높여주어야 한다. 일단 저체온증이 나타나면 생명이 위험해지기까지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으므로 빨리 미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따뜻한 음료를 먹이는 등 보온을 해준다. 침낭이 있다면 환자를 침낭 속에 눕히고 정상 체온의 동료와 함께 들어가 몸으로 감싸주며 119의 구조를 기다린다.

### 세 고개 요령이 있으면 겨울산이 즐겁다

겨울철에는 산행 계획과 동반자, 걷는 법 등을 모두 달리해야 한다. 눈이 오면 산행 시간이 평소의 두 배로 늘어나고 해가 짧아지므로 일찍 시작해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을 짠다. 겨울철 등산을 계획한다면 혼자 보다는 여럿이 가는 편이 도움이 된다. 최소한 3명 이상의 인원이 같이 가며 경험이 많은 리더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눈길을 내야 하는 경우 폭을 넓게 하지 말고 동작과 보폭도 작게 해 체력소모를 줄인다. 선두를 교대로 서 체력을 안배하고 하벽지까지 눈이 차면 선두는 배낭을 벗고 눈길을 내는 것이 힘이 덜 들고 능률도 좋다. 오르막길에서는 앞꿈치로 사면을 디디고 내리막에서는 뒤꿈치를 박는다. 만약 산에서 길을 잊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먼저 구조요청을 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치를 알려줄 수 있도록 전등을 깜빡이거나 호루라기를 불고, 불을 피워 체온을 확보한 상태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책이다. 길을 찾겠다고 나섰다가는 급격한 체력 소모를 일으킬 수 있다. ⑩



### 두 고개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익혀라

안전한 겨울 산행을 위해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준비다. 몸의 체온을 유지해줄 옷과 유용하게 쓰일 장비, 에너지를 보충해줄 간식까지 모두챙긴 후 출발하자.

요즘은 워낙 등산복이 대중화되어 방한용 내피와 방수 외피로 이루어진 전문등산복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몇 가지 팁을 더하자면 옷을 입을 때는 두꺼운 옷 한 벌 보다는 얇은 옷 여러 겹으로 체온조절을 하고, 면이 아닌 흡한속건의 기능성 소재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신발 외에 아이젠과 스파츠를 구비하고 그 위에 방수 스프레이나 방수유를 발라 눈에 젓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장갑은 젓을 경우를 대비해 여유분을 준비하고, 휴대폰 배터리 여유분, 플래시 등도 잊지 않아야한다. 모자도 필수품이다. 인체의 체온실 중 30~50%는 머리에서 빠져나가므로 귀까지 기울 수 있는 겨울용 모자를 쓰는 것이 좋다. 겨울 산행은 체력의 고갈이 심하므로 배가 고프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열량을 보충하고 따뜻한 물로 수분도 공급하도록 하자. 날개로 포장된 캐러멜, 초콜릿, 말린 과일, 소시지, 치즈 등 고열량의 식품을 추천한다.



## 즐거운 인생을 부르는

부글부글 분노 줄게 꽂피는 행복 다오

## 효과적인 분노 조절법

글 전경구 <똑똑하게 화를 다스리는 법> 저자  
건강행복미을 CEO  
사진 이행호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한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다”라고 설�했으며, 21세기에 현존하는 14대 달라이 라마 역시 “우리 삶의 목적은 행복해 지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다.

### 먼저 심호흡을 한 번 해보라

화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한국인의 10대 사망 원인 중 임(1위)과 뇌졸증(2위), 심장질환(3위)과 자살(4위), 운수사고(6위)와 고혈압(10위) 등은 모두 분노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5위로 나타난 당뇨병도 일부 연관이 있다). 이처럼 분노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물론 분노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분노가 쓸데없거나, 자신과 주위를 파괴적으로 만든다는 데 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였던 화이트 교수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 동기로서 ‘주위를 통제 및 속달하고 싶은 동기’를 지적한다. 그래서일까? 인간은 자신과 주위를 통제할 때 기분이 좋고, 반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낸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위를 쉽게 통제할 수 있는가’에 있다. 효과적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3단계 여정을 거친다. 우선 본격적인 여정에 앞서 심호흡을 해보자. 그리고 편안한 행복감을 느껴보라. 심호흡이 끝났다면 이 글을 주의집중해서 읽어보자. 그럼 필요 이상의 분노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귀중한 원리 하나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인간은 자신과 주위를 통제할 때

기분이 좋고, 반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낸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위를

쉽게 통제할 수 있는가’에 있다.

### 분노, 반드시 다스릴 수 있다

효과적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1단계, 문제를 정확하게 규명하라.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적절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인을 모르면 ‘우물가에서 승강을 찾는 격’이 되지 않던가.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 보겠다. 나를 자주 화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화를 자주 일으키는 사람이나 상황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 후 적어보라(읽기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상사의 꾸지럼, 하급자의 비협조, 고객의 부당한 항의와 불평, 가족의 잔소리 등이 있을 것이다.

분노의 원인을 찾았다면 다음 단계로 진입이 가능하다. 2단계, 분노에 대한 통제 능력을 수치로 평가하라. 앞서 적은 상황 또는 사람에 대한 통제가 전혀 불가능하다면 0을, 통제가 언제나 가능하다면 100이라는 점수를 매겨 각각의 상황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표기하면 된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대개 0이나 3정도가 가장 많이 나왔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제하기 힘든 상황과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니 결과는 백전백패, 자신이 자신을 죽이는 꼴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 ‘AAA전법’을 활용하라. 만약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상황을 수용하라(Accept it)’ ▲혹시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면 ‘용기를 내어 상황을 바꾸라(Alter it)’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적절한 시점과 상황이 올 때까지 피해라(Avoid it)’. 이 원리만 이해하고 실천해도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분노를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들은 주로 바뀔 수 없는 것에 대해 쓸데없이 화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제하기

힘든 상황과 싸우고 있다.

그러니 결과는 백전백패,

자신이 자신을 죽이는

꼴이 되는 것이다.

###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테터스는 원래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고통을 겪으며 억울하게 살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8세기 인도의 유명한 학자이면서 수도승이었던 산티 데바도 동일한 주장을 펼쳤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라인홀드 니버의 “신이여, 나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평안 기도에도 잘 요약돼 있다.

아무쪼록 이 글을 읽는 넥센타이어 가족 모든 분들이 분노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⑩

# 그 남자의

멋을 아는 남자의 스타일링

## 외출 30분 전?

글 안성은

### 30분 전

#### 선크림과 비비크림을 바르자

남자가 무슨 화장품이냐고 거울 앞에 서는 것 조차 꺼리던 시대는 지났다. 스킨, 로션 단 두 개의 화장품에만 피부 건강의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 역시도, 앞으로는 선크림과 비비크림을 추가하자. 선크림은 피부가 자외선에 오랜 시간 노출돼 탄력을 잃고 기미나 주근깨, 심지어 주름살이 생기는 것까지 막아준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비비크림으로는 잦은 면도로 거칠어진 피부에 보습, 영양, 주름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다.

비비크림의 마법(?)을 경험하고 싶거든 깨끗이 씻은 얼굴에 스킨-로션-선크림-비비크림을 순서대로 바르자. 선크림은 바른지 30분 후에 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야외로 나가기 30분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비비크림은 기본적으로 피부의 잡티를 제거하고, 유수분을 조절해주지만 제품에 따라 모공 축소와 피부 진정, 미백 효과까지 그 기능이 천차만별이다.

비비크림을 고를 때는 손등에 적당량을 덜어 테스트해 내 피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컬러를 선택한다. 비비크림을 바를 때에는 콩알 만큼 짜 볼, 이마, 코, 턱 등에 균등하게 찍어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톡톡 두드려 흡수시킨다.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위터프루프 기능이 있는 것으로, 얼굴에 유분기가 많은 사람은 오일프리 기능이 있는 비비크림을 선택하면 더욱 도움이 된다.



#### 비비크림

- 01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3 스텝 클리닝 시스템으로 피지 생성과 분비, 흡착을 억제해 끈적거림 없는 부드러운 피부를 연출해준다.
  - 02 피부결 정돈, 자연스러운 커버, 자외선 차단 등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비비로션으로 신뜻한 마무리감이 오랜 시간 보송보송한 피부로 가꿔준다.
  - 03 자연스럽게 피부톤을 한 단계 밝혀주고 황산화 기능이 뛰어난 비타민C와 디올라 추출물이 협유되어 외부의 온도 변화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 헤라 움브 70ml 3만5,000원

아름다운 외모는 더 이상 여성만의 경쟁력이 아니다. 남자가 무슨 차장이나고 손사래 치던 시대는 가고 깔끔하고 매끄럽고 향기로운 남성이 더 각광받는 오늘이 되었다. 그래서 남자의 아침이 바빠졌다. 바르고 만지고 뿌려야하는 요즘 남자의 외출 전 30분! 당신의 스타일링을 위한 꼼꼼한 조언을 공개한다.



### 15분 전

#### 왁스로 헤어 스타일링을 하자

괜히 '머리발' 이란 말이 있는 것이 아니다. 헤어스타일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고, 성격까지 추측하게 한다. 그 때문에 얼굴에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한 것만으로도 멋진 옷을 차려입은 것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헤어젤을 너무 많이 발라 머리를 딱딱하게 굳히거나, 브러시에 무스를 뿌려 설렁설렁 빗질하는 것만이 헤어 스타일링이 전부인 '아저씨'라면 이번 기회에 왁스의 세계로 입문해보자.

왁스는 머리카락을 고정해주고 촉촉하고 윤기 있는 헤어스타일을 가능하게 해준다. 머리를 감은 후 물기만 살짝 제거한 상태에서 헤어 에센스를 바르고, 머리를 조금 더 말린다. 그 다음 헤어 왁스를 한두 손가락 첫 번째 마디만 살짝 묻을 만큼 덜어서 손바닥의 열기로 충분히 비빈 후 모발 끝에 발라준다.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양 손가락을 모발 속부터 끝까지 위로 옮겨주며 움직이고 마무리로 머리카락을 조금씩 누어 꼬아주듯 세심하게 정돈한다. 요즘은 액체로 만들어진 분사형 형식의 왁스도 인기가 좋다. 이는 스타일링을 좀 더 수월하게 연출해 주는데, 왁스를 뿌리고 모발을 주먹 쥐듯 쥐었다 펴다 하면 모발 전체에 입체감이 만들어진다. 왁스를 바른 후엔 좀 더 확실한 고정력을 위해 스프레이를 쓰는 것도 한 방법. 왁스 사용 후에는 무광 스프레이를 쓰는 것이 좋고, 왁스를 생략하고 에센스만 발랐다면 유광 스프레이를 쓰는 것이 좋다.

#### 향수를 입자

향수를 뿐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입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뷰티 아이템이다. 마릴린 먼로는 잠잘 때 '샤넬 넘버 파이브' 향수만 입고 잔다고 말해 못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도 했다. 한 병의 향수에 담긴 향은 백여 가지가 넘는다. 향의 종류가 다양하니 뿌리는 시간과 방식에 따라서 각기 다른 향을 발산한다. 게다가 향마다 각각 알코올의 함량에 차이를 두어 증발하는 데 시차를 두었다. 향수를 뿐리자마자 나는 강한 향은 탑노트, 30분 후에 은은하게 풍기는 향한 미들노트, 향수를 뿐린 지 2~3시간이 지나 다른 사람이 쉽게 맡기 어려운 옅은 향을 베이스 노트라 불린다. 우리는 미들노트를 풍겨야 한다. 이동시간을 고려해서 출발 30분 전 혹은, 출발 바로 전에 향수를 뿐리자.

손목 등 맥이 뛰는 곳을 중심으로 뿐리고, 겨드랑이 등 땀이 많이 나는 부위는 삼가도록 한다. 양복의 재킷 안쪽과 넥타이, 소매 끝단, 머리카락 끝에 살짝 발라주면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향기를 풍길 수 있다. 보통 봄, 여름엔 레몬이나 감귤, 라임 등 가볍고 시원한 계열이 적당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무거우면서도 은은한 플로럴이나 사향, 진저 등이 좋다. 좋아하는 스키너션 향이 있다면 그것과 같거나 비슷한 계열로 맞추어 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출발 전



#### 향수

- 01 관능미를 강조한 향수로 스피어민트와 페퍼민트, 와일드 민트가 강렬하고 신선한 향기를 풍긴다.
  - 02 도시 남성의 이미지를 형상화 한 향수로 플로럴 우디 머스크 향이 관능적이면서도 세련돼 강렬한 향기를 원하는 남성에게 적합하다.
  - 03 은은한 진저, 시트론, 민트, 머스크 향이 조화를 이뤄 마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듯 상쾌하면서도 밝은 이미지의 향기를 전한다.
- 르빠 겐조 와이드 에디션 50ml 6만9,000원

# 부부싸움

건강한 부부생활을 위한 기술 대방출

## 룰은 지켜가면서 합시다

글 김한울  
사진 이맹호

참조 〈김영희 위원이 제안하는 이혼극복솔루션〉,  
〈부부치료〉,〈이혼법정 이야기〉

싸우지 않는 부부가 과연 있을까? 결혼생활 전문가들은 싸우지 않는 부부가 훨씬 위험하다고 한다. 고로 부부는 안 싸우는 것보다 잘 싸우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다고 죽자사자 싸우라는 얘긴 아니다. 부부싸움을 통해 두 사람의 차이를 극복하고 갈등을 해소하라는 말일 터. 그럼 지금부터 부부생활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줄 '부부싸움 잘 하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자.



### Round 1

#### 말싸움의 기술

"하, 정말 못 살겠어요. 폭력이 꼭 때려야만 폭력인가요? 한마디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저희 남편은 모를까요? 톡하면 무시, 빙정대기는 지구상 챔피언일 겁니다."

A씨는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혹은 일상생활에서 남편이 툭툭 내뱉는 말에 우울증까지 걸릴 정도이며 하소연을 해왔다. 실제로 부인, 혹은 남편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고 마음의 담을 쌓은 부부가 한두 쌍이 아니다. 말 한마디로 천 낭 빛은 못 갚을지언정 사람 가슴에 비수를 꽂을 필요 있을까. 그것도 한평생 내가 사랑해야 할 반려자에게 말이다.

말싸움에는 다음과 같은 룰이 존재한다. 첫 번째, 밀바닥 자존심을 건드리는 비난은 삼기라. 인간은 스스로 자존심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다. 따라서 부부싸움에서 아무리 격한 감정이 밀려와도 자존심을 들추며 끝까지 가보자는 식의 비난은 부부생활을 악화시키는 독(毒)이다. 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설득이 아닌 상대방의 인격을 문제 삼는 발언도 비난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내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듣질 않아. 이런 물상식한 인간 같으니라고" 등은 절대 입 밖으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이다. 두 번째, 책임전가식의 무책임한 말은 삼기라. 상대의 지적을 도리어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핑계대거나 "그러는 당신은 뭘 질했어?" 라며 떠미는 반격은 더 큰 화를 초래하는 격이다. 세 번째, 비웃거나 경멸하는 말은 삼기라. 싸움에서 가장 위험하며 서로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바로 '경멸'이다. "꼴에 잘난 척은, 주제파악이나 하시지" 등은 듣기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말이 아닌가. 반드시 결혼은 동등한 입장의 남녀가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Round 2

#### 파악의 기술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부부도 남녀의 차이를 알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먼저, 남자는 일종의 자기방어적인 측면이 크다. 원시시대부터 남자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 사냥하고, 자기를 위협하는 적과 목숨을 걸고 싸워왔다. 이러한 공격적인 성향과 자기방어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엔 맹렬히 싸우지만 지지부진하면 자리를 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여자의 입장에선 지금 내 말을 들어주길 원하는데 남자가 또 문제를 회피하는 생각되는 것도 이 때문. 그러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혼자서 정리하기도 하는 남자들의 본능을 이해해야 한다.

바라는 역할에 대한 차이도 크다. 남자는 여자에게서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사랑을 받고자 한다. 성인이 돼서도 어릴 때 무한대로 받던 애정에 목말라 하는 것이다. 반면 여자는 아버지와 같은 보살핌과 배려를 원한다. 하지만 당신 곁에 있는 배우자는 무한정 베풀기만 했던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끝으로 남녀는 발달된 부분에 큰 차이가 있다. 남자는 이성, 여자는 감성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결혼생활에 대해 이해하는 측면도 많이 다르다. 남자의 결혼은 '현실'이지만 여자는 결혼은 '환상'이다. 매일 아침 꽃을 선물해 주길 바라는 부인과 꽃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남편이 바로 그 예다. 그러니 틀렸다 생각지 말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 Round 3

#### 관계의 기술

부부싸움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섹스의 부재'라고 답한 부부가 적지 않다. 이율리 이혼 전문가들이 이혼심리를 분석한 결과, '성적 불만'이 대다수다.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거나 하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된다. 배우자의 외도도 이러한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하기 싫은 관계를 억지로 해야 하는가?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민을 토로하는 부부들에게 다음의 방법을 생활에 적용하라고 권유한다. 첫 번째, 부부만의 사인을 가져라. 섹스에 관한 자신의 상태를 번호(1번 '매우 원함', 2번 '원함', 3번 '보통', 4번 '별로 원치 않음', 5번 '절대 원치 않음')로 나눠 대화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나 오늘 1번인데…, 여보는?", "오늘 일도 많고 피곤해. 미안하지만 난 5번이야"로 묻고 답한다면 "왜이래 귀찮게" 리듬과 "싫어" 등의 말로 상처 주는 일 없이 서로를 배려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소를 바꾸고 분위기를 짹 바꿔라.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장소에서 하는 섹스는 자루 할 수밖에 없다. 방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로맨틱한 모텔이나 펜션 등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말고 둘만의 시간을 갖는다면 연애할 때의 흥분과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④

### 부부싸움 잘하기 7 계명

- 1 승리자가 되려 하지 말라  
부부의 싸움에서 승자도, 패자도 없다.
- 2 싸움을 하기 전 화가 나는 이유를 적어라  
주제에서 벗어나는 싸움을 막는다.
- 3 24시간 내내 공소시효를 지켜라  
24시간 내에 벌어진 일만 가지고 싸워야 한다.
- 4 제3자를 개입시키지 말라  
친정, 시댁 등의 비난은 서로에게 상처로 남는다.
- 5 관중은 절대 두지 말라  
아이에게 충격으로 남을 수 있다.
- 6 장외 경기는 금물, 1m 이내에서 끝내라  
자리를 뜨거나 피하면 싸움은 지속된다.
- 7 미봉 상태로 끝내지 말라  
싸움의 끝에는 반드시 화해가 필요하다.



## ● 송구영신

### 2011 종무식, 2012 사무식

지난 12월 30일 2011년을 마무리하는 종무식이 열렸다. 이어 1월 3일에는 새해 각오를 다지는 시무식이 개최되었다.

이현봉 부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2012년을 전과 기회의 원년으로 잡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을 당부했다.

## ● 노사상생협력 유공포상

### 대통령 표창 수상

넥센타이어가 '2011 노사상생협력 유공포상'에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모범 기업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장을 수상했다.

넥센타이어는 사내 협력업체와 상생협약 체결, 2010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19년 동안 무분규 사업장 유지 등 노사관계 선진화 제도의 성공적 시행으로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기여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현봉 부회장은 "넥센타이어는 안정된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해 우수한 경영성과와 일자리 창출을 이

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상호신뢰의 노사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타 기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으랏차차

### 2012년도 스포츠마케팅 박차

넥센타이어가 프로야구 구단 넥센 히어로즈와 메인스폰서십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까지 동반자적 관계를 이어간다. 또한 프로배구 '2011~2012 V리그'를 맞아 GS칼텍스서울KIXX와 드림식스 등 2개 팀과 제휴를 맺고 입장권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함께 진행하며 스포츠마케팅에 더욱 힘쓰고 있다.

## ● 제48회 무역의 날

### 철탑 산업 훈장 수상

제48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넥센타이어 대표이사인 이현봉 부회장이 철탑 산업 훈장을 수상했다. 더불어 재료파트 최해운 직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해 격경사를 맞았다.

넥센타이어의 이번 수상은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수익경영을 실현한 성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 대한민국 우수산업디자인전

### 우수디자인(GD) 선정

넥센타이어의 친환경 타이어인 '엔블루 에코'가 '2011 대한민국 우수산업디자

인' 전에서 국내타이어 제품 중 유일하게 '우수디자인(GD)' 인증을 획득했다.

이어 겨울용 UHP 제품인 원가드 스포츠가 미국의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송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하며 넥센타이어의 디자인 경영이 결실을 맺었다.

지난해에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N8000'과 '원가드 스포츠' 두 개 제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등 넥센타이어의 디자인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 ● 제48회 무역의 날

### 철탑 산업 훈장 수상

제48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넥센타이어 대표이사인 이현봉 부회장이 철탑 산업 훈장을 수상했다. 더불어 재료파트 최해운 직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해 격경사를 맞았다.

넥센타이어의 이번 수상은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수익경영을 실현한 성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 TOP 성과 총정리

### 2011 공장혁신활동 시상식

지난 12월 공장혁신사무국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공장혁신활동 TOP진단 및 제안활동 우수 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품질검사팀은 TOP진단 우수부서와 제안활동 최우수부서에 동시에 선정되어 격경사를 맞았다. 더불어 2011 넥센 제안왕에는 PCR파트 양규상 직장이, 제안 마일리지 부문에서는 정련파트 문형섭 대리, 품질검사팀 남경옥 사우가 모두 500마일리지를 달성하며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 우수사업장 인증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과 넥센타이어가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펼쳐온 다양한 지원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았다.

넥센타이어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 ● 세계 최대 타이어 전시회

### 2011 SEMA Show 참가

넥센타이어는 지난 11월 1일부터 나흘간 세계 최대 타이어 전시회인 '2011 SEMA Show'에 참가, 수출용 주력상품과 신제품 및 친환경 제품 등을 해외바이어들에게 선보이며 수출시장 공략에 더욱 힘을 쏟았다.

최근 출시한 '엔블루 에코' 제품을 전시장 중앙에 배치해 친환경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고 미래지향의 컨셉존을 새롭게 설치, 넥센타이어가 장착된 벤틀리와 BMW 차량을 전시함으로써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 ● 타이어 업계 최초

### 탄소캐시백 실시

넥센타이어가 친환경 타이어 '엔블루 에코'의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

는 탄소캐시백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탄소캐시백'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제품 구매자에게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되돌려 주어 녹색소비를 장려하는 제도다.

넥센타이어 측은 "최근 세계적 이슈인 친환경 경영은 마케팅차원을 넘어 기업의 미래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됐다"며 "앞으로 저탄소 친환경 제품의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신뢰의 파트너십

### 타이어뱅크 임원진 창녕공장 방문

지난 12월 9일 타이어뱅크 임원진 20명이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을 방문했다. 창녕공장 직원들은 전자동화 공정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공장 전반에 대한 소개와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에 타이어뱅크 임원진들은 공장의 규모와 자동화 설비에 감탄을 표하며 다시 한 번 우리 제품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 독자 후기

자연과 함께하는 넥센타이어의 사보를 읽다보면 대한민국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매 계절이 함께 시작되고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계절의 또 다른 의미로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항상 미래를 준비하고 기회가 많은 넥센타이어의 희망을 일년 내내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넥센타이어의 아름다움이 대한민국의 사계절입니다.

• 김호정 강원도 강릉시 교2동

'기술린, 고무타이어 그리고 헨리포드 자동차 대중화 시대가 오다' 기사는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향후 가능성을 쉽게 설명해준 유익한 기사입니다. 바퀴와 타이어의 순차적인 결합이 자동차의 속도와 승차 시 편안함을 증가시켰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둑글게 흘러가는 우주 만물의 움직임처럼 자동차도 순리대로 진행되는 역사의 궤도를 밟아 대체 에너지와 결합해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 윤용현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우리는 전자파에 포위됐다'라는 기사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 전자파 없는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24시간 전자파와 동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험성도 알고 멀리해야 하는 것도 알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네요.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니 사보 내용을 참고해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 김현주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

## 참여해주세요

〈헬로우넥센〉에 궁금하셨던 점, 바라는 점 등을 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헬로우 넥센〉 구독신청은 넥센타이어 홈페이지([www.nexentire.com](http://www.nexentire.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자 경영관리팀 박수현 055.370.5283 [soo0526@nexentire.co.kr](mailto:soo0526@nexentire.co.kr)

## 지난호 정답

## 세로

1 키자니아 4 오체 5 앤화 7 대관령

## 가로

2 자동화 3 아오리 5 언블루 5 광대

## 퀴즈 당첨자

- 박재옥 서울시 도봉구 쌍문1동
- 강문일 경북 포항시 청림동
- 조복형 충남 천안시 성환읍
- 서건희 전남 여수시 여서로
- 정영배 경남 사천시 산벽동
- 조선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 이창규 경남 김해시 장유면
- 오미숙 전북 익산시 남중동
- 강경원 경기 이천시 중리동
- 주영훈 경북 영주시 영주동

## 복습 퀴즈

	3	4		
1				6
		5		
2				
		7		

## 세로

- 1 경제적인 곤란으로 겪는 생활상의 괴로움  
4 물건을 전면적,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건물의 OOO을 아들에게 주었다.  
6 벼려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 동물. 임순례 감독이 대표로 있는 'KARA'는 OOO을 보호하는 단체

## 가로

- 2 장생포 일대는 OO문화특구로 지정돼 있다.  
3 석탄과 석유의 주성분이며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 원소기호 C, 이산화OO  
5 부부가 결혼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삶증을 느끼는 시기  
7 펌프질을 하기 전 먼저 뜯는 한바 가지 정도의 물

# 100g 세상을 이어주는 의기적

캐나다 키플링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빨간색 클립이 있습니다. 종이클립을 1년 만에 집 한 채와 맞바꾼 사건을 기념하는 조형물이지요.

2005년, 카일 맥도널드는 블로그에 빨간색 클립 사진을 올리고

이것을 다른 물건과 교환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얼마 후 클립은 펜, 문손잡이, 발전기, 소형 배울 거쳐 키플링의 이층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무모하다 말하던 도전으로

기적 같은 현실을 일구어 낸 것입니다.

클립 하나가 이어준 14번의 인연.

철사를 구부려 만든 작은 클립 하나에도 이렇듯 커다란 힘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길과 길을 이어주는 타이어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길을 따라 구르면서 수많은 곳을 이어주는 타이어가 제 할 일을 끝낸 뒤에는 100g의 고철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연을 이어갑니다.

서류를 묶어주는 클립으로, 밥을 뜨는 수저로, 십자 머리의 나사못으로. 생활 속 꼭 필요한 곳에서 작은 기적을 이루어가는 타이어의 변신은 무한합니다.

